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털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97호 2025년 07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 '이주민과 지역사회, 함께 성장해요!'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지원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오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북부상공회의소 2층에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해외동포 등 다양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권익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 2면> 동연언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경기도, 우체국 EMS 할인을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주민까지 확대하다!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예요.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해요.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돼요.

E-7 근로자 등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은 다소 아쉽겠네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돼요. 본인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이 EMS를 발송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0원, 총 2,700만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우체국 EMS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실 우려가 거의 없고 안전하고 정확히 배송된다는 점에서 우체국 EMS가 더 우월하지요. 경기도가 특별히 외국인주민을 위해 이번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 우체국 EMS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京畿道决定与京仁地方邮政厅携手,将现有的仅限于多文化家庭的国际特快专递(EMS)费用折扣扩大到部分外国居民,并实行该服务.真是个好消息!京畿道和京仁

地方邮政厅从2011年开始为多文化家庭早日定居韩国,提供了国际特快专递(EMS)费用优惠.但是从今年开始,支援对象扩大到部分外国人.追加支援对象为居住在京畿道的▲外国留学生(D-2,D-4)▲外国劳动者(E-8,E-9,H-2)▲外国国籍同胞(F-1,F-2,F-3,F-4,F-5)▲求职者(D-10)等,占京畿道全体外国人的85%.

他们将与多文化家庭享受同样的优惠政策,访问邮局寄送EMS时享受10%运费折扣,使用在线简便申请时最多可享受13%的优惠.E-7劳动者等不能享受折扣优惠的外国居民多少有些遗憾.

如果想享受折扣优惠,可以携带外国人登录证(外国国籍同胞在国内居住申报证)访问道内邮局...<중략, 베트남어 11면, 러시아어 23면, 태국어 11면, 영어 18면, 몽골어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화성 32~36

중국어(Chinese) 中文 1, 13, 29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1, 21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6, 23, 33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1, 21 영어(English) 18, 25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13, 23

정책 Policy 2, 34 생활정보 Information 3, 5, 15 나의 학습 My Study 9, 10, 12, 22, 28 교육 Education 29 이주배경청소년 4 행사 Event 2 사이버대 17, 25, 33 보건 Health 14 경기외국인SNS기자단 1, 21 외국인주민 34, 35 국제교류 31 여가 Leisure 8, 19 독서 Reading 6, 21, 29 EMS 1, 11, 18, 23 금융 Finance 13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이주민과 지역사회, 함께 성장!'

경기도,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강화...다국어 상담 시스템 도입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지원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오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북부상공회의소 2층에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기존 안산시에 있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해외동포 등 다양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권익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도의원,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담당장,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등 내외빈과 약 15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센터 현관 제막식 ▲시설 투어 ▲축사 ▲공감 홍보 프로그램 ▲문화 공연 ▲공감 토론회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의 경기도 이민사

회 종합계획 발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인력 확충'과 '다국어 상담 시스템' 도입입니다. 센터 인력이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대폭 늘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총 10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는 법률 및 노동 상담, 생활정보 제공, 통번역 인력 양성, 종사자 역량 강화, 정책 개발 등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소식 후 열린 '공감 토론회'에서는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허영길 경기도 이민정책과장, 이민자 대표 수잔 사키야, 블레싱 씨 등이 참여해 경기도 이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서는 이민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더 나은 상생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습니다.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약 75만 명의 이민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

로 정착하고, 서로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곳이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든 순간이 많았던 만큼, 이제는 더 많은 이민자들이 언어 걱정 없이 법률, 노동, 생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이민자 대표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자들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이민자와 지역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외국인 기자단의 한 사람으로서, 이민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연연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장민수 경기도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이 7월 15일(화) 제 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

행되고 있는 불시 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 방식이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입국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현재 시행 중인 단속 방식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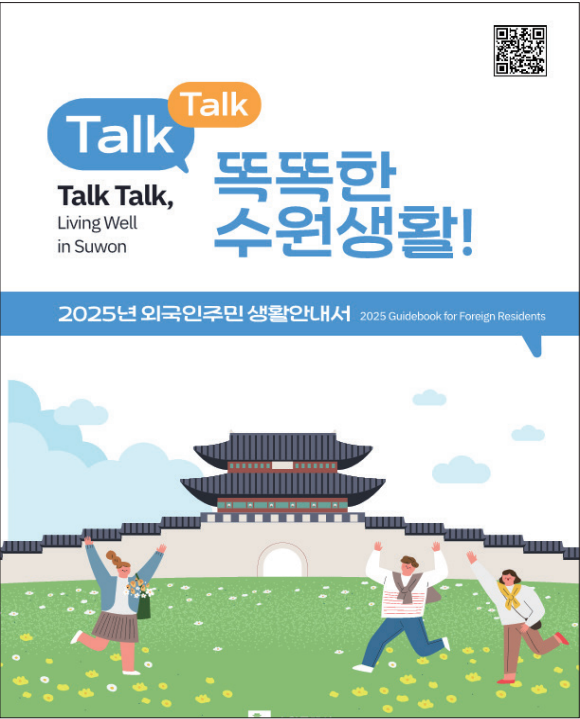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주여성이 기계에 추락해 발목이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 교통사고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은 단

속 대상자의 신병 확보를 넘어 이주민 전체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는 형편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불시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에서 자진출국 유도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의 전환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불법 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고용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단속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법무부의 「출입국사법 단속 및 보호준칙」 이행 실태 외부 점검 체계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하성 기자

'TALK TALK, 똑똑한 수원 생활!'

수원시, 2025년 외국인주민 맞춤형 생활안내서 제작 눈길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실생활 정보를 담은 다국어 생활 안내서 ‘TALK TALK(똑똑), 똑똑한 수원 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어요.

‘TALK TALK, 똑똑한 수원 생활!’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한국어 기반)로 제작됐어요. ‘수원시 바로알기’, ‘수원시 생활 안내’,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

내’ 등 3장으로 구성해 한국과 수원이 어색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했어요.

‘수원시 생활 안내’에는 생활쓰레기 처리 요령, 지방세, 생활민원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생활 법규, 체류 등 수원에 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어요.

보육, 관광, 응급실 현황 등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진 정보를 수록해 실효성을 높였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중국어·베트남어·영어·인도어·네팔어·일본어·미얀마어·몽골어·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번역해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했어요.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에서는 수원시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수원시 운영기관 사업, 다국어 지원 서비스, 수원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외국인주민 공동체 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TALK TALK, 똑똑한 수원 생활!’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분야별 정보>복지>이주민>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어요.

수원시정 관계자는 “이번 전자책이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매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주민들이 수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송하성 기자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수원시, 8월 11일~11월 30일까지 주 25~30시간 근무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29명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하반기 수원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아기용품 지원사업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 ▲어린이 전문예술클래스 양성 프로그램 ▲미술관-학교(교육청) 연계 교육프로그램 예술 강사 양성 프로그램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 상담·통번역 서비

스 ▲다문화가족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소양교육 및 자격증 과정 운영 ▲호매실 과수공원 만들기 등 9개가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18세 이상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월~금요일 주당 25~30시간씩 근무한다. 시급은 시간당 1만 30원이며, 매일 부대비 5000원을 지급한다.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일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5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동행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8월 1일까지 사업 부서에서 선발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일자리사업팀(031-51913272)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한국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외국인도 지급해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지급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에 한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외국인 ▲둘째,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7월 14~21일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 하반기 수원시 새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147명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기타 사업’ 등 3개 분야 121개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월~금요일에 주당 20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시급은 시간당 1만 30원이며, 매일 부대비 5000원이 지급된다,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일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13~14일 중 개별 연락한다.

송하성 기자



지역사회 주도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ESG 리더십 탐험대' 운영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주 요셉)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을 돕고, 공동체 속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4월~6월 「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7월 3~4일에는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ESG 리더십 탐험대」 캠프를 운영했다.

이 캠프는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 증진, 협업 활동 강화, 주체적인 행동 습관 형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총 25명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ESG 리더십 탐험대는 총 3개 분야에 맞춰 생활 속 환경 보호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플로깅 활동(Environmental)과 사회적 가치 변화를 위한 토의·숏폼 제작 활동(Social/Governance) 등의 자치 활동을 실시했다.

플로깅 활동(Environmental)은 가평군 삼회리와 연계하여 총 180분간 생태환경 체험, 생태복원 보드게임, 삼회리 일대 플로깅 및 분리수거 활동으로 진행되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자연환경 보호를 실

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의·숏폼 제작 활동(Social/Governance)은 “다양한 언어로 전하는 긍정의 말”, “더 나은 환경을 위한 1분 인터뷰”, “차별 표현 변화”를 주제로 조별 활동을 진행했다. 함께 토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완성된 숏폼을 발표하며 관계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었다.

또한 가평 레일바이크와 자체 레크레이션 및 신체 활동 등을 통해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총 25명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하여 성취감을 고취하고, 리더십 자치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했다.

한 이주배경 청소년은 “수플로 체험활동과 숏폼 제작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며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주도성 향상과 12월 송년회 기획을 목표로 8월~12월 리더십 아카데미 자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 내 On-tact 상담 또는 070-4125-3310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과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MZ세대 부동산 알기 교육'



수원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인, 공직자 등 MZ(엠지) 세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주로 MZ세대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많이 발생해 교육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7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MZ세대 인생 첫 부동산 바로 알기 교육'을 했다. 강의를 안 이승주 공인중개사는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계약 기초 상식”을 주제로 집을 구하기 전부터 입주하기까지 과정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8월 4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한다.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earning.suwon.go.kr/>) 수강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MZ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수원 24세 청년, 8월 11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해요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3분기는 9월 1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수강료·시험응시료로 사용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와 온라인으로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घरेलु फोहोरको उचति व्यवस्थापन

✓ PET पोलिथिनबोटल (पत्र, पानी)

Step 01

बोटल खालीगरनुहोस्

Step 02

सफा गरनुहोस्

Step 03

अलग गरनुहोस्

Step 04

नमसिउनुहोस्

✓ गाजी झोला (दुधको डबिवा, सोया दूध प्याक, सोनु प्याक)

सामग्री खाली गर्नु, पानी, सुक्खा पार्नु।
• कागजी फोहोरलाई अन्य फोहोरसँगमिसाइ तोकिएकोसंकेतन बक्समा राख्नु,
• यद कागजीफोहोरको उचेल बक्स छैन भने, अन्य फोहोरबाट अलग गर्नु।
• १ कंजी कागजको प्याकलाई १ रोल ट्वाइलेट पेपरमा साट्नुपर्न सकिने,
(नजिकको जुमनि सेन्टर) ।

✓ तूका क्या (पेय पकरय क्यान, बरिक्का क्यान, डबिबाबंद खानाको क्यान)

धातुको डबिबा र अन्य सामग्रीहरू जस्तै प्लास्टिकको डेक्नहरू हटाउनु

✓ काँचको बोटल (पेयपदार्थको बोटल, बाइनको बोटल, सोनुको बोटल)

बोटल सामग्री खाली गर्नु, पानीले सफा गर्नु, घुटेको दुटा, आदी अन्य वस्तुहरू नहाल्नुहोस्।

✓ प्रयोग गरिएका ब्याट्री

हटाउन सकिने ब्याट्रीहरू उत्पादनबाट छुट्याउने, ब्याट्री एक उचित फोहोर संकेतन बक्समा संकेतन गर्नु

• प्रयोग गरिएको ब्याट्रीको मरिहति फोहोरले ठूलो आगो निम्त्याउन सक्छ।
• 20 वटा प्रयोग भएका ब्याट्री 2 वटा नयाँ ब्याट्रीमा साट्न सकिन्छ।
(नजिकको जुमनि सेन्टर)

✓ सजलि फुट्ने, सजलि नजल्ने ससियुक्त वस्तुहरू

प्रशानसकि कोनट्रमा आवश्यक फोहोरको झोलाहरू खरिद गर्दा फोहोर फाल्ने गर्नुहोस्।

• फुटेका ससियुक्त वस्तुहरू (फ्लोरोसेन्ट बत्ती, लाइट फक्सिचर, बोटल, पेना), काँच टाइपका भाँडाहरू, बालुवा वा फोहोर, आदी

✓ प्रयोग गरिएका घरेलु सामानहरू संग्रहको लागि नभिलक आरक्षण साइट

☎ 1599-0903

📍 www.15990903.or.kr

खाद्यान्नको फोहोर

फोहोर फाल्नुअघि खोलेमस फोहोमा भएको पानीलाई हटाउनुहोस्।
(फोहोरफाल्नुअघि घाँगे माथिल्लोपट्टा खोले पानी १०% फाल्नु बाँकी फोहोर घाटान सक्नेछ।)

खादय फोहोर बाहेक अन्य पदार्थहरू हटाउनुहोस्, जस्तै डस्टिपोजेबल प्लास्टिक टुक्राहरू

मसाला बेसार र कम्पिनी लागेको फोहोरफाल्नु अघि एक पटक पानीले पखालेर मात्र फाल्नुहोस्।

खरबुजा जस्ता ठूला फलहरूलाई सानो सानो टुक्राबनाएर मात्र फोहोर फाल्नुहोस्।

खादयफोहोरलाईनिरिधरति खादयफोहोरकट्टेनरवाली कफिकोखादयफोहोरकोझोला फाल्नु।

फोहोरफाल्नेसमय
(घननिर्क्ष र जाइलवार बाहेक अन्य दिन)

१. फोहोर फाल्नेस्थान: आफ्नो घरवाआफ्नोपसलकोअगाडि
२. फोहोर फाल्नेसमय: हेरकदिनसाँझ ८ बजे र अर्कोदिनबहिन ५ बजे

Правильный способ утилизации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 Прозрачные пластиковые бутылки (напитки, вода)

Step 01

освободить

Step 02

промыть

Step 03

сортировать

Step 04

не смешивать

✓ бумажные пакеты (молоко, соевое молоко, соджу)

Утилизируйте, после очистки от содержимого, промойте начисто водой и в высушите тару.
• Утилизировать отдельно от бумажных изделий, в специальный ящик для утилизации бумажных пакетов.
• При отсутстви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ящика для сбора бумажных пакетов, утилизировать отдельно от бумажных изделий.
• Обмен 1 кг. бумажных пакетов на 1 рулон туалетной бумаги.
(в отделении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в наличии обмен затруднителен)

✓ жестяная банка (от напитков, от пива, от консервов)

Отделить пластиковые куд алить этикетку рышки, металл и другие материалы друг от друга

✓ Стеклопая тар (от напитков, от соджу)

Освободить от содержимого, сполоснуть водой, не красть внутри сигаретные окурки и другие инородные предметы.

✓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батарейки

Вставные батарейки обязательно утилизировать отдельно от изделия. Изделия со встроеными батарейками подлежат утилизаци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ящик для сбора.
• Смешанный выброс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большому пожару
• Обмен 20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батареек на 2 новые (район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организация в освоения ресурсов, центр физический культуры города Сувон)

✓ Нерастворимые отходы

Выбрасывать в специальные пластиковые мешках, которые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 Разбитые стеклянные изделия (флюоры, осветительные приборы, бутылки, зеркала), керамические сосуды, песок и ли почва и т.д.

✓ Бронирование утилизации с посещением

☎ 1599-0903

📍 www.15990903.or.kr

Пищевые отходы

Выбрасывайт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ольете всю жидкость, удалите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влаги (лишь можно сократить отбросы на 10% и более, просто уберите в мусорный бак).

Удалите пищевые отходы от инородных материалов, такие как одноразовые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пакеты и зубочистки.

Продукты содержащие много соли и кимчи выбрасывать после разрезания на кусочки и уменьшения объема.

Продукты больших размеров, например арбуз, выбрасывать после разрезания на кусочки и уменьшения объема.

Пищевые отходы выбрасывать в специальные пакеты.

Время выноса мусора
(кроме, субботы и воскресенья)

1. Место выноса мусора: перед домом или магазином
2. Время выноса мусора: ежедневно с 20.00 до 5.00 следующего дня

Ахуйн хог хаягдлыг зөв хаях арга

✓ тунгалаг PET хуванцар сав (ус, ундааны тунгалаг хуванцар сав)

Step 01

хоослох

Step 02

зайлах

Step 03

лабел наалт шошгыг хууль хаях

Step 04

холихгүй байх

✓ цаасан хайрцаг (ундааны лааз, шар айрагны лааз, хүнсний бутээгдэхүүний лааз)

доторхыг нь хоослон, усаар сайтар зайлж, хатааж хаях
• бусад төрлийн цаастай холихгүйн тулд зориулалтын тетрапак савалгаа хайрцагны хойгин саванд хаях
• зориулалтын тетрапак савалгаа хайрцагны хойгин сав байхгүй бол бусад төрлийн цааснаас тусад нь ялгах хаях
• 1 кг тетрапак савалгаа хайрцагыг 1 ширхэг ариун цэврийн цаасар солино (хорооны халамжийн төв)
(нөөц дууссан тохиолдолд солиж өгөх боломжгүй)

✓ металл лааз (ундааны лааз, шар айрагны лааз, хүнсний бутээгдэхүүний лааз)

хуванцар таг зэрэг металл аас бусад т рлийн матери алыг ялган хаях

✓ шилэн сав (ундааны шил, дарсны шил, сожу архины шил)

доторхыг нь хоослон усаар зайлж, тамхины иш гэх мэт гадны зүйлсийг хийж болохгүй

✓ хаягдал зай батерей

• зөөврийн батерейг хаяхын өмнө тухайн бүтээгдэхүүнээс батерейг салгаж хаях
• бүтээгдэхүүнтэй холбогдсон салдаггүй батерейг бүтээгдэхүүнтэй нь тэр чигээр нь зориулалтын цуглуулагын саванд хаях
• хаягдал батерейг хольж хаях нь их хэмжээний гал гарахад хүргэдэг.
• хаягдал 20 батерейг 2 шинэ батерейгаар солино (хорооны халамжийн төв, нөөцгүй нөөц сэрэх байгууламж, Сувон спорт, соёлын төв)
(нөөц дууссан тохиолдолд солиж өгөх боломжгүй)

✓ шатамхай бус хог хаягдал

хорооны халамжийн төвөөс PP уут худалдаж аваад ялган хаях хаягдал

• хагарсан шилэн эд зүйлс (гэрэл, гэрэлтүүлгийн хэрэгсэл, шил, толь), шаазан, керамик аяга, элс, шороо гэх мэт

✓ хаягдал гэр ахуйн цахилгаан бараа зориулалтын утга төлбөргүйгээр хаялгар очиж авах захиалга

☎ 1599-0903

📍 www.15990903.or.kr

хоолны хаягдал

усыг сайн асгаад хоослоосны дараагаар хаях (усыг сайн шаван асгааж усаар 10 гаруй хувиар бууруулах боломжтой)

хүнсний хог хаягдлаас бусад нэг удаагийн галгар уут, цуцний чичлүүр зэрэг зүйлийг ялган хаях

давстай сумс, кимчи зэрэг дав ихтэй хоолны хаягдлыг усанд зайлж хаях

тарвасны хальс зэрэг том хэмжээний хоолны хаягдлыг жижиглэн хэрхих хаях

хүнсний хог хаягдлыг хүнсний хог хаягдлын зориулалтын саванд эсвэл хүнсний хог хаягдлын зориулалтын уутанд хийж хаях

хог хаягдлыг хаях хугацаа
(бямба, ням гарагт хаях боломжгүй)

1. хаях газар: гэрийнхээ эсвэл дэлгүүрийн урд
2. хаях цаг: өдөр бүр оройн 8 цагаас дараа өдрийн үүрийн 5 цаг хүртэл

Cách Xử Lý Rác Thải Sinh Hoạt Đúng Cách

✓ Chai nhựa trong (nước ngọt, nước sôi)

Step 01

Làm sạch

Step 02

Rửa sạch

Step 03

Loại bỏ nhãn hiệu

Step 04

Không trộn lẫn

✓ Giấy hộp (Hộp sữa, hộp sữa đậu, hộp đựng nước, hộp sinh tố)

Đổ hết chất bên trong và rửa sạch, làm khô trước khi thải
• Vứt bỏ vào thùng tái chế để giấy hộp không bị lẫn với các loại giấy khác.
• Phân loại giấy thường ra trước khi vứt bỏ thùng hộp không có thùng tái chế
• 1 ký giấy hộp đổi được 1 cuộn giấy vệ sinh (Tại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phường).
(Có thể không phát khi hết hàng)

✓ Lon kim loại (lon nước ngọt, lon bia, lon thực phẩm đóng hộp)

Loại bỏ nắp nhựa và các vật liệu khác trên lon kim loại

✓ Chai thủy tinh (chai nước ngọt, chai rượu vang, chai rượu soju)

Đổ hết chất bên trong ra và rửa sạch. Không để vật lạ như tàn thuốc lá.

✓ Pin phế liệu

Nhất định phải tách khỏi sản phẩm trước khi thải Pin có thể tháo rời phải được tháo ra khỏi sản phẩm trước khi thải bỏ. Các sản phẩm tích hợp pin đều phải bỏ vào thùng tái chế chuyên dụng.
• Không tách riêng có thể gây hỏa hoạn lớn.
• 20 pin phế liệu đổi được 2 pin mới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phường. Có số phục hồi tài nguyên, Trung tâm văn hóa và thể thao Suwon)
(Có thể không phát khi hết hàng)

✓ chất thải không cháy

Mua bao PP tại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cho vào thùng khi vứt
• Các đồ thủy tinh vỡ (đèn huỳnh quang, đèn chiếu sáng, chai lọ, gương) đổ sữa, đĩa sứ, cát hoặc đất, v.v..

✓ Đặt lịch thu gom đồ gia dụng phế liệu miễn phí tại chỗ

☎ 1599-0903

📍 www.15990903.or.kr

Rác thải thức ăn

Vứt bỏ nước để loại bỏ càng nhiều hơi ẩm càng tốt trước khi thải (chỉ cần loại bỏ nước thôi cũng có thể giảm hơn 10% trọng lượng)

Loại bỏ các chất lạ ngoài rác thải thực phẩm, như túi nilông và tấm xi măng.

Rửa sạch nước mặn trong các loại dưa và rửa kim chỉ trong nước trước khi thải.

Cắt những loại thực phẩm có kích thước lớn như dưa hấu thành từng miếng nhỏ trước khi thải.

Thải rác thực phẩm vào thùng chuyên dụng hoặc túi đựng rác trọng lượng

Thời gian thu gom rác thải
(không thu gom ngày thứ bảy và chủ nhật)

1. Vị trí thải rác: Nhà tôi hoặc trước cửa hàng của tôi
2. Thời gian thải rác: Mỗi ngày 8 giờ tối ~ 5 giờ sáng ngày hôm sau

경기도,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연간 최대 6만원 지급해요

전국 최초로 독서활동을 지역화폐로 보상...외국인주민은 2026년부터 참여 가능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독서활동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시작했어요. 마일리지, 기념품 같은 인센티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에요. 경기도의 놀라운 독서지원정책이지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는 14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만원(하반기 최대 3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해요. 포인트는 도서 구매, 도서관 대출, 독서일지 작성, 리뷰 등록, 천권클럽(독서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적립할 수 있어요.

활동별 인증(영수증, 사진, 일지 입

력 등) 확인을 거쳐 포인트가 자동 적립돼요. 누적된 포인트는 매월 25일 지역화폐로 전환돼요. 전환된 지역화폐는 도내 지역서점에서 도서 구매에 사용할 수 있어요.

포인트 적립 기간은 7월 1일~11월 24일이에요. 지급된 지역화폐는 12월 7일까지 사용해야 해요.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돼요.

기본 적립 외에도 '가입 축하 포인트', '추천인 보너스', '21일 출석체크 챌린지 포인트' 등 다양한 추가 보상이 준비돼 있어요.

독서포인트제는 전용 플랫폼(library.kr/bookpoint)에서 운영돼요. 포인트

적립과 지역화폐 전환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독서활동을 지역경제와 연결해 '도민의 독서→포인트 적립→지역서점 이용'이라는 독서문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도민의 독서 습관화와 지역서점 상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에요.

외국인주민도 참여할 수 있어?

외국인주민은 경기도의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에 내년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 전산 시스템에 외국인을 경기도민으로 입력하는 것이 어려워 시스템 수정작업을 거친 뒤 2026년부터 외

국인도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경기도청 관계자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통해 매일 10분씩에서 매월 1권씩, 평생 천 권의 독서에 닿길 기대한다"며 "전산 시스템 수정을 거쳐 외국인주민도 경기도의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경기도의 놀라운 독서지원 프로그램, 이제 외국인주민도 적극 참여해요! <중국어 29면, 베트남어 21면, 러시아어 하단, 태국어 2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의 뉴스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만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Впервые в стран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за чтение в виде местной валюты...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с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с 2026 года

Впервые в стран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за чтение в виде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с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с 2026 года

Кёнгидо впервые в стране запускает программу «Чтение на тысячу книг за поинты»,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за активность в чтении и начисляется местная валюта. Ранее в качестве поощрения за чтение предоставлялись баллы и подарки, но это первый случай, когда в Корею используется именно местная валюта. Это удиви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чтения от Кёнгидо.

Программа «Чтение на тысячу книг за поинты» рассчитана на жителей провинции старше 14 лет и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ить до 60 000 вон в год (до 30 000 вон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Поинты можно заработать, совершая книжные покупки, беря книги в библиотеке, ведя дневник чте

ния, оставляя отзывы и участвуя в книжных клубах (천권클럽).

Поинт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начисляются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участия в активности (чек, фото, запись в дневнике и т.д.). Накопленные поинты конвертируются в местную валюту каждый 25-й день месяца. Полученную валюту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покупки книг в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ах провинции.

Период накопления поинтов — с 1 июля по 24 ноября. Полученную местную валюту ну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о 7 декабря. Не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поинт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аннулируются.

Помимо стандартного накопл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бонусы: «Приветственные поинты за регистрацию», «Бонус за приглашение», «Челлендж 21 дня посещения» и т.д.

Программа «Чтение за поинты» действует на отдельной пла

тформе (library.kr/bookpoint). Проверить накопление поинтов и историю перевода в местную валюту можно на странице «Мой кабинет».

Кёнгидо стремится связать привычку к чтению с развитием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создавая замкнутый цикл: «Чтение → начисление поинтов →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местных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ах». Э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ка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ривычки чтения, так и поддержке местного книжного бизнеса.

А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с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Чтение на тысячу книг за поинты» с 2026 год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истема не позволяет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иностранцев как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поэтому посл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оработок участие иностранцев станет возможн

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ёнгидо заявил: «Через эту программу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люди начнут читать хотя бы по 10 минут в день, по одной книге в месяц и достигнут цели — тысяча книг за жизнь», — и добавил: «Мы внесем изменения в систему, чтобы и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могл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поддержки чтения от Кёнгидо».

Удиви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чтения от Кёнгидо — теперь 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Журналисты SNS из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ев в Кёнгидо

경기외국인SNS기자단

•Naver Блог: <https://blog.naver.com/ggforsns>

•Facebook: <https://www.facebook.com/ggforsns>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ggforsns/>

<한글 기사 상단>



다문화가족의 색다른 한국문화 배움
수원다가, 한국화 교육 ‘한국을 그리다’ 진행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7월 1일 한국화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화 연수모임인 '심묵회'의 지원으로 7월 24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3시까지 총 8회기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국화를 배움으로써 한국미술을 체험하고 한국문화를 알아 가는 색다른 기회를 얻고 있다.

첫 시간에는 한국화의 이해, 화조화의 내용과 기본 필법, 문방사우의 뜻과 재료의 특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인 한국화 그리기를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학의 머리, 목선, 등선, 가슴, 배,

다리, 발 및 소나무 그리기를 배워 작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들은 첫 시간에 화선지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색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그림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결혼이민자는 “벗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며 “평소에 텔레비전에서 접했던 한국화를 직접 그릴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서 그린 한국화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전시할 예정이며, 작품을 선별하여 12월 광고호 수공원에서 진행되는 심묵회의 작품전시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7월 1일부터 병원·장례식장 6개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동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화홍 병원 ▲수원시 연화장 등 6개소다.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1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원·장례식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해 심야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
민원발급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을 강화하
겠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행정안전부

수원복지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2006.12.31. 이전 출생자)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5.6.18.기준)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 ~ '25.9.12.(금)

2차 '25.9.22.(월) ~ '25.10.31.(금)

📅

첫 주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지급금액

1인당 15 ~ 50만원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지급수단

지역화폐(수원페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사용가능일

신청일 다음날 ~ '25. 11. 30.

신청·지급방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화폐(수원페이) 경기지역화폐 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25.7.21.(월) 9:00 ~ '25.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 기타 상세사항 [수원시청 홈페이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참고 | 국민콜 ☎110(권익위원회), 휴먼콜센터 ☎1899-3300

☑ 소비쿠폰 관련 개인정보 피해 주의(URL 링크 등 포함된 문자 절대 클릭 금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신고 등 ☎118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전이 기쁨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외국 식료품 판매자 준수사항

아래와 같은 수입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돼요

1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은 식품

2 한글표시사항(스티커)이 없는 식품

3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

판매하는 식품의 소비기한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이 진열·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반입한 식품

5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국내 반입한 식품

※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거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 제4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위반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5일 꿈두레도서관 제2 문화강좌실에서 오산시 관내 아버지와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가 빛나는 학교- 아빠랑 드론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들이 자녀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공동양육에 대한 참여와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0가정, 총 20명이 참여했다. 취학 아동과 아버지가 한 팀이 되어 드론을 함께 조립하고 직

접 조종해 보는 드론 시연 활동이 이뤄졌으며, 아버지와 자녀가 협력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함께 드론을 조립하고 날려보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진로동아리, 나를 알고 미래를 설계!

오산시가족센터, 이주민 자녀 2025년 진로설계지원사업 진행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8일 ‘2025년 진로설계지원사업-진로동아리 프로그램’ 네 번째 회기로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의 강점지능’을 운영했다.

이날 활동에는 다문화, 외국인, 난민 가족 자녀 12명이 참여했으며, 아동들은 보드게임을 매개로 자신의 지적 강점을 탐색하고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기에서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에 기반해 논리수학 지능과 신체 운동 지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양한 게임 활동이 진행됐다. 참여 아동들은 수리적 사고와 신체 협응이 필요한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협동과 소통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참여 아동은 “보드게임으로 강점을 찾아볼 수 있어 재밌었고, 내가 이렇게 순발력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진로동아리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돼 운영된다. 지금까지 ▲1회기 오리엔테이션 및 다중지능검사 ▲2회기 결과 해석 및 강·약점 탐색, ‘보물 나무’ 만들기 ▲3회기 직업동사카드를 활용한 사명 선언문 작성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

향후 회기에서는 자연 지능을 활용한 테라리움 만들기, 음악 지능과 연계한 AI 작곡 체험 등 다양한 지능 영역을 확장하는 활동이 계획되어 있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흥미와 역량을 여러모로 탐색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산시가족센터는 진로설계지원사업을 통해 대상 아동의 진로 탐색과 정서적 지원을 함께 도모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김영의 기자



오산시, 자매도시 8곳 관광지 무료입장 및 할인 혜택 부여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오산시 자매도시를 이용해보자. 오산시가 자매도시와의 협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국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산시는 강원 속초, 충북 영동, 전북 남원·장수, 경북 안동, 전남 진도·순천, 경남 남해 등 8개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알뜰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곳은 전북 장수군의 방화동자연휴양림이다. 울창한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고, 맑은 계곡물과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힐링 명소로,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와 자연을 선사한다.

특히 하계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오산시민 전용 객실 10실이 운영되며, 객실당 성수기와 주말 요금의 2만 원 할인 혜택도 제공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는 ‘오산시민 행복서비스’로 파라솔과 튜브 등 물놀이용품 무료 대여해주고, 공영주차장 주차권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덕분에 속초 여행을 더 안전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충북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은 숲속에서 쉬어가기 좋은 곳이다.

숙박 시설과 대관 공간을 30% 할인한다. 전북 남원시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지리산허브밸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전액 무료로 개방하고, 항공우주천문대, 어린이과학체험관, 화인당(한복대여)은 절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입장료가 소액이지만 감면돼, 전통문화의 멋과 고즈넉한 풍경을 느낄 수 있다.

전남 진도군은 윤림산방, 소전미술관, 해양생태관, 진도타워, 신비의 바닷길체험관까지 주요 명소를 모두 무료로 개방한다. 순천시도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 낙안읍성민속마을의 입장료를 절반으로 낮춰 여행의 문턱을 낮췄다.

남해군에서는 2025년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독일마을과 파독전시관, 유배문학관, 탈공연 박물관 등 문화 전시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바다와 어우러진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그 외에도 충남 보령시에 있는 천수만관광휴양지에서는 오산시와의 협약에 따라 ‘서해돌꽃펜션’ 숙박료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모든 혜택은 현장에서 신분증으로 오산시민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자매도시와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께 의미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김영의 기자



자녀의 학교생활, 미리 알고 대처해요
오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중학교 진학설명회' 운영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7월 5일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자녀의 중학교 입학 앞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현직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중학교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종류 및 진학 경로, 학교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학생 시기의 자녀 특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자녀교육과 진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한국의 중학교 교육에 대해 막연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자녀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감이 잡혔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병희 오산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이 자녀 교육 관련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산시가족센터는 고등학교 진학설명회도 준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자녀교육과 진로 설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함께해 더 즐거운 '가족 무비 데이'
오산시가족센터, 7월 가족사랑의날

오산시가족센터는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속 정서되근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사랑의 날 실천 도모를 위한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매달 개최하고 있다. 7월에는 가족사랑의 날 ‘가족 무비 데이’를 오는 30일 오후 7시 CGV 오산중앙점(경기도 오산시 원동로 22 르마레시티 3층)에서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가족 무비 데이’는 만 5-12세 자녀를 포함한 오산시 관내 거주 가족 대상이며, 7월 23일 오후 5시까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참여 가족 구성원 모두 회원가입 및 신청해야 한다. ‘가족 무비 데이’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확정자는 7월 24일 오후 2시 이후 개별 안내된다.

오산시가족센터는 또 온가족보듬사업-가족愛 프로그램 4회차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과일 타르트’를 오는 7월 26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 3층에서 진행한다. 오산 거주 취약 위기 가정 10가정이 대상이다. 온가족보듬사업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족 등 가족 기능이 약화된 위기가족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문의 031-376-3428 김영의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2025년 가족사랑의 날

가족 무비 데이

대상

만 5~12세 자녀를 포함한 오산시 관내 거주 가족
(선착순 / 단 2023~2025년 가족사랑의 날 사업의 프로그램 참여 가족은 대기 접수)

일시

7/30(수) 19:00 (영화 러닝타임 103분)

장소

CGV 오산중앙점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 22 르마레시티 3층)

신청기간

7/14(월) 10:00 ~ 7/23(수) 17:00

신청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s://osan.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304C450/recruitReceipt/view.do?seq=219027>)
(참여 가족 구성원 모두 회원가입 및 신청 필수)

비용

무료 관람

참여확정

7/24(목) 14:00 이후 개별 안내

문의

가족지원2팀 031-376-3428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오산시가족센터
OSANSI FAMILY CENTER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오산시가족센터 7월 프로그램 안내					
사업 구분	사업명	일시	대상	인원	내용
가족 관계	영유아기 부모교육	4월~10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관 기관	-	- 영유아기 사회성발달교육 - 영유아기 성교육 - 부모역량강화교육 등
	학부모지원	7/21(월) 7/28(월) 7/29(화)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	40명	- 가정에서 시작하는 초등경제습관 (고학년 / 저학년)
	아버지역할지원 (아빠가 빛나는 학교)	7/5(토) 7/21(토)	관내 거주하는 아버지와 학령기 자녀	60명	- 미취학 · 취학 자녀 신체활동프로그램 - 관내 거주 아버지와 학령기 자녀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3~8월	관내 거주하는 부부 단위의 스포츠 동아리	5팀 (46명)	- 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동아리 운영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4월~11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50명	- 생활안전교육 02회-폭력 예방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5월~10월	결혼이주여성	12명	- 요리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빛나는 '우리'가 되는 시간 - 매주 목 10시~12시 요리교실 - 매월 마지막 목 10~12시 자조모임 - 가족나들이
	중도입국자녀 한국 사회 적응지원	3~12월	9~24세 중도 입국자녀	11명	[중도입국자녀교실] - 한국어교육 - 심리정서지원_집단미술
		4~12월	대호중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12명	[언어로 다가감]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심리정서지원_집단미술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4월~9월	초등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일반가정 참여 가능)	38명	- 베트남어 교육(기초반·고급반) - 중국어 교육(기초반·고급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6월~7월	결혼이민자	반별 8~25명	- 한국어 단계별 과정 교육 실시 - 기초 1단계~5단계, - 토익II, 국적취득면접 대비반
가족 생활	다문화가족자녀지원 (진로설계지원사업)	4월~6월	대호중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14명	- 맞춤형 진로설계 집단 컨설팅 (꿈을 향한 나의 진로여행)
	1인가구지원사업	7/16(수)	관내 청년 1인가구	20명	- 반려식물 기르는 법, 나도 식집사! <홈가드닝 완전정복 클래스>



다문화정책과 실행이 구리시의 경쟁력!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에서 구리시 사회 분야 1위

구리시가 한겨레신문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 사회, 환경 세 영역별 회복력을 평가한 결과, 사회 분야 1위에 올랐어요.

이번 평가가 놀라운 것은 한겨레신문이 구리시의 사회 분야를 평가하면서 다문화정책을 가장 우수하게 봤다는 것이예요.

한겨레신문은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에서 한국어와 직업 교육을 받은 캄보디아 출신 이가운(35)씨의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외국인력팀에서 근무하는 이가운 씨는 “사무직 일자리는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주변에서 응원해줘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 씨는 코로나19 시기에는 구리시청 공공근로를 시작으로 보건소 콜센터에서 일했고, 이후 고용부로 일자리를 옮겼다고 해요.

구리시는 구리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2023년 시청 기간제 노동자로 결혼이민자를 채용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해 정규직에 취업하도록 했어요. 산하 기관에서는 결혼이민자 인턴제도도 운영 중이에요.

윤성은 센터장은 “청년 세대인 결혼이민자들이 단순 노동에만 머문다면 사회적 손실”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사례가 다른 결혼이민자들에게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구리시는 다문화정책이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 회복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이끈다고 평가받았어요.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 언어발달 교육과 더불어 유치원과 학교에서 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를 체험하도록 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인식 개선에도 힘썼어요. 구리전통시장 내 교류소통공간 ‘다가온’과 여성행복센터의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플랫폼 ‘다공방’ 등도 운영 중이에요.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의 더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구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1일부터 신청·지급... 행정력 집중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가동한다.

전담 TF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에 복지문화국장으로 구성되며, 사업 총괄, 실행계획 수립, 지급수단 준비, 예산편성, 민원 대응체계, 정보시스템 운영, 신청·접수,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등 주민 밀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7월 21일부터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 등 일부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오프라인 접수 창구인 8개 동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단기 보조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1차 지급 마감일인 오는 9월 12일까지 매일 추진 현황을 취합·보고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차 지급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2025년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 베트남어 2학기

- 참여대상** 구리시 거주 초등학교 다문화 자녀
구리시 거주 7~13세 자녀
*비다문화 가족 자녀도 참여 가능!
- 모집기간** 2025년 07/22(화)~08/15(금)
- 교육일정** 2025년 8/26(토)~12/6(토) 매주 토요일
- 신청방법** QR코드 접속 후 네이버 폼 신청!
신청서 확인 후 개별 안내
- 문의** 가족사업팀 070-7776-2978

2025년 온가족보듬 교육문화 '소통의 씨앗, 가족愛로 피어나다'

나와 꽃, 그림책...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자녀와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프로그램 안내	일시	활동내용
1학기	2025.08.02 (토) 10:00~12:00	-빙고게임(전하고 싶은 말) -압화 원목 큐브 전등 만들기
2학기	2025.08.09 (토) 10:00~12:00	-독서활동"선인장호텔" -강점찾기 테라리움 정원 만들기

진행 장소 구리시가족센터 대교육장 (여성행복센터 5층)

참여자 모집

- 모집대상** 구리시 거주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 10가정 (10대 청소년 자녀와 함께 참여, 2회기 모두 참여 필수)
- 신청기간** 2025.07.14(월), 10:00 ~ 07.18(금), 18:00
- 신청방법** 구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온가족보듬-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가족원예프로그램 '소통의 씨앗, 가족愛로 피어나다' 클릭! (참여 구성원 모두 신청)
- 문의** : 070-7775-6549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경기도청 핫라인으로 알려주세요!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
☎ 경기도G독 (카카오톡에서 채팅추가 후 채팅상담 가능)
☎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https://www.gg.go.kr/welfarehotline>)

Tỉnh Gyeonggi giảm giá 10% khi đến trực tiếp bưu điện gửi bưu phẩm quốc tế EMS, và giảm 13% khi đăng ký trực tuyến đơn giản.

Tỉnh Gyeonggi đã hợp tác với Cục Bưu chính Khu vực Gyeongin để mở rộng chính sách giảm giá cước phí chuyển phát nhanh quốc tế (EMS), vốn trước đây chỉ áp dụng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nay sẽ được áp dụng cho một bộ phận cư dân nước ngoài. Đây thực sự là một tin rất đáng mừng.

Tỉnh Gyeonggi và Cục Bưu chính Khu vực Gyeongin đã cung cấp ưu đãi giảm giá cước EMS từ năm 2011 nhằm hỗ trợ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sớm ổn định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Tuy nhiên, bắt đầu từ năm nay,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đã được mở rộng thêm cho một số cư dân nước ngoài.

Đối tượng hỗ trợ bổ sung bao gồm: ▲du học sinh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visa D-2, D-4), ▲lao động nước ngoài (visa E-8, E-9, H-2), ▲người gốc Hàn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visa F-1, F-2, F-3, F-4, F-5), ▲người tìm việc (visa D-10),... chiếm khoảng 85% tổng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ại tỉnh Gyeonggi.

Những đối tượng này cũng sẽ được hưởng ưu đãi giảm giá tương tự như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hiện tại, với mức giảm 10% phí gửi EMS khi đến trực tiếp bưu điện và tối đa 13% khi sử dụng dịch vụ đăng ký trực tuyến. Tuy nhiên, thật đáng tiếc là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như lao động diện E-7 lại không được áp dụng chính sách giảm giá này.

Để được hưởng ưu đãi giảm giá, bạn chỉ cần mang theo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Giấy đăng ký cư trú trong trường hợp là người gốc Hàn Quốc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và đến bưu điện trong tỉnh.

Nếu không phải là người gửi trực tiếp mà là bạn bè hay người khác gửi EMS thay, cần nộp bản sao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và giấy tờ tùy thân của người gửi thay. Trường hợp gửi số lượng lớn EMS với mục đích thương mại sẽ không được áp dụng ưu đãi giảm giá.

Ông Kim Won-kyu, Cục trưởng Cục Xã hội Di cư tỉnh Gyeonggi, cho biết: “Chúng tôi đã thúc đẩy thỏa thuận lần này nhằm giúp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Hàn Quốc có thể giữ kết nối với gia đình và tìm được sự ổn định về mặt tinh thần”, đồng thời nói thêm: “Trong tương lai,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phát triển các chính sách hỗ trợ thiết thực hơn nữa để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an tâm sinh sống tại tỉnh Gyeonggi.”

Trong khi đó, vào năm ngoái, khoảng 4.000 kiện chuyển phát nhanh quốc tế đã được hỗ trợ giảm giá cước với mức khoảng 6.600 won mỗi kiện, tổng cộng là 27 triệu won.

Thực tế, ở hầu hết các quốc gia đều có những cách gửi hàng rẻ hơn so với dịch vụ EMS của bưu điện.

Tuy nhiên, EMS của bưu điện vẫn được đánh giá cao hơn vì gần như không lo bị thất lạc, an toàn và giao hàng chính xác.

Rất mong các bạn hãy tích cực sử dụng dịch vụ EMS của bưu điện – nay được tỉnh Gyeonggi đặc biệt hỗ trợ giảm giá dành riêng cho cư dân nước ngoài! <한글 기사 1면,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ส่วนลดไปรษณีย์ EMS ขยาย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ไปถึง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ว!

ที่ทำการไปรษณีย์ประจำ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และคยองอินได้ตัดสินใจขยายส่วนลดค่าบริการไปรษณีย์ส่ว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EMS) ซึ่งเดิมจำกัดเฉพาะ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 ให้ครอบคลุมไปถึง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างส่วน ซึ่งถือเป็นข่าวดีจริงๆ

ที่ทำการไปรษณีย์ประจำ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โดและคยองอินได้ให้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ส่วนลดอัตราค่าไปรษณีย์ส่ว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EMS) ตั้งแต่ปี 2011 เพื่อช่วยให้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สามารถตั้งถิ่นฐานในเกาหลี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ตั้งแต่ปีนี้เป็นต้นไป ได้ขยายกลุ่ม ผู้รับสิทธิ์ให้ครอบคลุ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างกลุ่มอีกด้วย

กลุ่มผู้ได้รับสิทธิ์เพิ่มเติมคือผู้ที่พำนัก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ได้แก่ ▲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D-2, D-4)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E-8, E-9, H-2)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เชื้อสายเกาหลี (F-1, F-2, F-3, F-4, F-5) ▲ผู้ที่อยู่ระหว่างหางาน (D-10) ซึ่งกลุ่มเหล่านี้คิดเป็น 85% 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งหมดที่พำนัก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มนี้จะได้รับสิทธิ์ส่วนลดเช่นเดียวกับ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เดิม คือ ส่วนลด 10% เมื่อไปส่ง EMS ที่ไปรษณีย์ และหากสมัครผ่าน ออนไลน์แบบง่าย จะได้รับส่วนลดสูงสุดถึง 13%

น่าเสียดายที่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างกลุ่ม เช่น แรงงาน E-7 จะไม่ได้รับสิทธิ์ส่วนลดนี้

หากต้องการ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ส่วนลด ผู้ใช้บริการจะต้องนำ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ณี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เชื้อสายเกาหลีให้ใช้ ใบรายงานถิ่นที่อยู่ในประเทศ) ไปที่ที่ทำการไปรษณีย์ภายในจังหวัดได้เลย หากไม่ใช่เจ้าตัว แต่ให้เพื่อนหรือบุคคลอื่นเป็นผู้ส่ง EMS แทน จะต้องแนบสำเนา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ของผู้มีสิทธิ์ พร้อมบัตรประชาชนของผู้ส่งแทน ทั้งนี้ หากส่ง EMS จำนวนมากเพื่อวัตถุประสงค์เชิงพาณิชย์ 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รับส่วนลดนี้ได้

คิม วอนกยู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กิจการสังคม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เราส่งเสริมข้อตกลงนี้เพื่อ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สามารถติดต่อกับครอบครัวได้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และมีความมั่นคงทางจิตใจ”

และยังกล่าวเสริมอีกว่า “ต่อไปเราจะยังคงพัฒนาและค้นหา นโยบายสนับสนุน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รู้สึกได้จริง เพื่อให้พวกเขาใช้ชีวิต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อย่างมั่นคง”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เมื่อปีที่แล้ว ได้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ส่วนลดค่าบริการไปรษณีย์ส่ว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กว่า 4,000 ครั้ง โดยส่วนลดเฉลี่ยครั้งละ ประมาณ 6,600 won รวมเป็นเงินทั้งสิ้น 27 ล้านบาท

อันที่จริงแล้วประเทศส่วนใหญ่อาจจะมียูตีลิตี้ที่ราคาถูกกว่าบริการ EMS ของไปรษณีย์ แต่ด้วยเหตุผลที่ EMS มีความเสี่ยงต่อการสูญหาย น้อยมาก รวมทั้งจัดส่งได้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และส่งถึงปลายทางอย่างแม่นยำ จึงทำให้ EMS ของไปรษณีย์มีความเหนือกว่านั่นเอง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ขอเชิญชวนใช้บริการ EMS ของไปรษณีย์ ซึ่งมอบส่วนลดพิเศษนี้สำหรับ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โดยเฉพาะ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한부모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요!

남양주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 진행

남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주연)는 지난 6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가족보듬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 ‘마음 씨앗 키우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6월에는 3회기에 걸쳐 남양주시가족센터 상담실, 주연팍에서 사례관리 대상 가정 중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이 진행됐다.

1회기에는 가족 구성원이 TCI 검사를 하여 서로의 기질과 성격을 알아보고 2회기에는 해석 상담을 통해 다른 기질과 성격에서 오는 관계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ONE코칭이 진행되었다.

3회기에는 진건읍에 위치한 주연팍에서 함께 블루베

리를 수확하고 다양한 허브들과 둘레길 산책, 쿠키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동안 하기 어려웠던 활동들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들은 한부모 가족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협동하는 좋은 추억이 됐다.

남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진행된 다양한 활동이 한부모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며 “8월, 9월까지 남은 회기에도 다양한 가족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욱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교육생 모집...신규 강좌 눈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센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과정은 최신 트렌드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총 92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특히 새롭게 개설된 강좌들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신규 강좌 중 ‘생성형 AI로 시작하는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과정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블로그·SNS·영상 제작·보고서 작성 등을 실습한다.

또한, ‘반려동물 기초미용’과정은 반려동물 산업 확대와 맞물려 개설됐으며, 실습중심으로 진행돼 반려동물 돌봄과 직업 연계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적합하다.

이외에도 ‘독서코디네이터 전문가과정’, ‘라테아트 & 핸드드립(바리스타 1급 자격증 과정)’ 등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수강신청은 남양주시 평생학습 포털 ‘다산서당’홈페이지를 통해 16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하반기 평생학습센터 강좌는 8월 11일부터 개강한다. 문의 031-590-4084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가족센터

2025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남양주시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서비스 유형** 통역, 번역, 정보제공
- 이용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 등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지원내용** 한글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 연락처** 베트남어: 031-553-8211
중국어: 031-556-8212
몽골어: 031-556-8211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기타언어에 대한 지원은 인근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 문의사항** 031-553-8211 | nyj8211@hanmail.net
- 센터주소**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가족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NAMYANGJU FAMILY CENTER

남양주시가족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8월) 안내

여름아 부탁해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장소	대상	내용
자녀	청소년 돌봄지원	8/4(월) 10:00~18:00	다산요리학원	진건중학교 20가족	진로체험 활동 (파티세, 스포츠) 가족관계증진활동
		8/5(화) 10:00~18:00	스포츠몬스터(하남)		
	종이접기	8/11(월) 10:30~11:30	공동육아나눔터(다산)	5세~9세 아동	종이접기
	엑티브영어	매주 (월) 16:30~17:30	공동육아나눔터(다산)	6세~9세 아동	영어책놀이
가족	천천히 함께	매주 (화),(수) 14:00~16:00	공동육아나눔터(다산)	선정된 아동 4명	느린학습자를 위한 기초학습교육 및 사회성증진 활동
	결혼이민자 기초소양교육	8/1(금)	남양주시제2청사 3층, 배움3 교육실	결혼이민자 15명 (한국어 중급이상)	구직서류 피드백 면접전략 일자리 정보 제공
	내외국인이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가족팩토리"	8/2(토) 10:00~12:00 8/2(토) 14:00~16:00	낙서공방(와부읍)	비다문화, 다문화 24가족	"가족팩토리" 우리 가족, 함께 그리는 이야기" 문화소통 프로그램
	파배기데이	8/8(금) 16:30~17:30	73사단 공동육아나눔터 (양정동)	군인가족 등 보호자	베이커리놀이
	언어발달이야기	8/18(월) 10:00~12:00	73사단 공동육아나눔터 (양정동)	군인가족 등 보호자	자녀의 언어와 읽기 쓰기 이야기
	동화구연	8/13(수), 8/20(수), 8/27(수) 10:30~11:30	공동육아나눔터(다산)	0세~7세 자녀와 부모	그림책 놀이와 동요

· 일부 프로그램은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신청, 프로그램홍보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남양주시가족센터 031-556-8211, 8212

가족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NAMYANGJU FAMILY CENTER

“이제 등록외국인의 제2금융권 금융거래가 편리해져요!”

금융결제원, 6월 이후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모든 제2금융권 확대 시행...편의 증대

국내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비은행권 비대면 금융 거래가 더욱 편리해져요.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할 때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예요.

제2금융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은행 외에 신탁,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를 말해요.

외국인이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에서 대면으로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요? 이때 금융회사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 보내는데 법무부에서 보유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이제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이예요.

이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했어요. 그러니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에 당국은 2023년 9월 제1금융권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고 지난 1월부터는 제2금융권 내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어요. 그런데 6월 이후부터 모든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도 이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예요.

금융 분야는 외국인주민이 한국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야예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현금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좀 약해지고 외국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금융기관이 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해요. <중국어 하단, 몽골어 1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6月起,“外国人登录证真伪验证服务”全面扩大至所有第二金融圈金融机构

在韩国居留的登记外国人,今后在非银行金融机构办理非面对面的金融业务将更加方便。

韩国法务部和金融结算院宣布,将把“外国人登录证真伪验证服务”扩大至第二金融圈。

这项服务是指,当外国人在银行柜台或通过手机应用等办理需要身份证验证的金融业务时,法务部可以实时验证其身份证件的真伪并反馈结果。

所谓“第二金融圈”是指除我们通常所知的银行之外的信用合作社、储蓄互助社、相互储蓄银行、capital等金融机构。外国人在金融机构的柜台办理业务或使用移动

应用进行非面对面交易时,需要进行身份证验证。这时,金融机构会将外国人登录证 包括永久居留证、外国国籍同胞居住证)上的个人信息及照片发送给金融结算院,由其与法务部保有的信息进行对比,判断该身份证件的真伪。现在,验证结果可以实时返回给金融机构。

在该服务投入使用前,金融机构的工作人员只能通过肉眼来判断证件真伪,因此准确性较低,且非面对面交易存在诸多限制。

对此,政府于2023年9月在第一金融圈引入了该服务,并从今年1月起,在部分希望参与的第二金融圈机构中进

行试点运行。而从6月开始,该服务正式在所有第二金融圈金融机构全面启动。

金融领域一直是外国居民在韩国较难获得完善服务的领域。仅因是外国人,很多人在申请现金卡、信用卡或贷款时常常遭遇不利待遇。近年来,虽然这种情况有所改善,也有越来越多金融机构开始强化针对外国人的服务,但整体而言仍不够完善。金融结算院表示:“通过这项服务,登记在案的外国人的金融交易将更加便捷,同时也能有效防止伪造或被盗用身份证的使用。”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Гадаад иргэдэд хоёрдогч санхүүгийн үйлчилгээ илүү хялбар болно

Солонгост оршин суудаг гадаад иргэд банкнаас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чилгээтэй онлайнгаар харьцахад улам хялбар болж байна.

Хууль зүйн яам болон Санхүүгийн төлбөр тооцооны газар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бүртгэлийн үнэн зөвийг шалгах үйлчилгээг хоёрдогч шатны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өргөтгөн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болсноо мэдэгдлээ.

Энэ нь гадаад иргэн салбар дээр эсвэл гар утасны апп зэргээр дамжуулан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 шалг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санхүүгийн үйлчилгээ авах үед Хууль зүйн яам тухайн үнэмлэхийн жинхэнэ эсэхийг бодит цаг хугацаанд шалгаж өгдөг үйлчилгээ юм.

Хоёрдогч шатны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а гэдэг нь бидний сайн мэдэх ердийн банкуудаас гадна хадгаламж-зээлийн хоршоо, Сэмаиль сан, харилцан хадгаламжийн банк,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капитал компани зэрэг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ыг хэлдэг.

Гадаад иргэн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ын салбар дээр биечлэн эсвэл гар утасны апп ашиглан биечлэн уулзалтгүйгээр санхүүгийн үйлчилгээ авах тох

иолдолд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ээ шалг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даг, тийм ээ? Энэ үед санхүүгийн компани н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бүртгэлийн үнэмлэх (байнгын оршин суух үнэмлэх, гадаад харьяалалтай иргэний дотоод оршин суух мэдэгдэл зэрэг)-ийн хувийн мэдээлэл болон зурагтай хамт Санхүүгийн төлбөр тооцооны байгууллагад илгээдэг бөгөөд Хууль зүйн яам дээрх мэдээллийг өөр дээрээ байгаа мэдээлэлтэй харьцуулан үнэн зөв эсэхийг нь тодорхойлдог. Тэгвэл одоо энэ үр дүнг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бодит цаг хугацаанд мэдэгдэх боломжтой болсон юм. Энэ үйлчилгээ нэвтрэхээс өмнө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ын ажилтан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ийн жинхэнэ эсэхийг нүдээрээ шалгадаг байсан. Тиймээс нэрийн арийнчлал муу байсан бөгөөд, биечлэн уулзалтгүй гүйлгээ хийхэд хязгаарлалттай байх хүндрэлүүд байсан шүү дээ.

Үүнтэй холбогдуулан эрх бүхий байгууллагаас 2023 оны 9-р сард нэгдүгээр шатны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бүртгэлийн үнэн зөвийг шалгах үйлчилгээг нэвтрүүлсэн бөгөөд өнгөрсөн 1-р сараас эхлэн хоёрдугаар шатны санхүүгий

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дотроос хүсэлт гаргасан газруудад энэ үйлчилгээг туршилтаар ажиллуулсан. Гэтэл 6-р сараас хойш бүх хоёрдугаар шатны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д энэ үйлчилгээ албан ёсоор эхэлсэн юм.

Санхүүгийн салбар нь гадаад оршин суугчид Солонгост хэрэгцээт үйлчилгээг бүрэн авч чадахгүй байдаг салбар юм. Гадаад хүн гэдэг шалтгаанаар бэлэн мөнгөний карт авах, кредит карт авах, зээл авах зэрэгт олон удаа хууль бус хязгаарлалттай тулгардаг.

Сүүлд үед ийм хандлага харьцангуй багасаж, гадаад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үйлчилгээг сайжруулах санхүүг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нэмэгдэж байгаа ч одоог хүртэл хангалтгүй байна.

Санхүүгийн төлбөр тооцооны байгууллагаас “Энэхүү үйлчилгээгээр бүртгэлтэй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санхүүгийн гүйлгээ илүү хялбар болох бөгөөд мөн хуурамч, засварлагдсан эсвэл хулгайлагдсан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ийн ашиглалт ч зогсоогдох боломжтой” гэж мэдэгдлээ.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Guidelines on prevention of heat-related illness in summer **heatwave**



1. Follow the three basic rules

Outdoor workplace	Indoor workplaces
Water ☑ Provide cool and clean water / Drink water regularly during work	Water ☑ Provide cool and clean water / Drink water regularly during work
Shade ☑ Provide shade (rest area) near the workplace ☑ Shade canopies should be located in areas that allow cool breezes to pass through ☑ Install additional mobile air conditioners if needed	Wind ☑ Install temperature and humidity meters in the workplace and check them regularly ☑ Install fans and mobile air conditioners and ventilate regularly ☑ Managing indoor temperature even when working at night
Breaks ☑ Provide regular breaks of at least 10 to 15 minutes when a heat advisory (caution, alarm) is issued ☑ Minimize outdoor work during peak heat hours (14~17)	Breaks ☑ Provide regular breaks of at least 10 to 15 minutes when a heat advisory (caution, alarm) is issued ☑ Minimize outdoor work during peak heat hours (14~17)

2. Responding heatwaves

☑ Suspension of work by employers or workers if there is an imminent danger of heat-related illness

Warning or heat alarm Sensory temperature of 35°C or higher ☑ Provide 15-minute breaks every hour ☑ Suspension of work outdoors except when it is unavoidable during heatwave timeslot	Danger or heat alarm Sensory temperature of 38°C or higher ☑ Provide 15-minute breaks every hour ☑ Suspension of work outdoors excep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ork during heatwave timeslot
Common conditions Sensory temperature of 31°C or higher ☑ Providing heatwave information to workers ☑ Provide cool water and shade (rest areas), and breeze ☑ Provide cooling equipment such as cooling arm sleeves, etc. ☑ Management of high-intensity workers and sensitive groups	Caution or heat advisory Sensory temperature of 33°C or higher ☑ Provide 10-minute breaks every hour ☑ Reduce or adjust outdoor work time during heatwave timeslot

3. Measures in case of heat-related illness

☑ Call 112 immediately ☑ in case of heat-related illness ☑ Contact in case of emergency

Yozgi **issiq** havo oqimi bilan bog'liq kasalliklar oldini olish



1. 3 ta asosiy qoidaga rioya qilish

Ochiq havodagi ish joylari	Ichki ish joylari
Suv ☑ Salqin va toza suv bilan ta'minlang / Ish paytida suvni muntazam iste'mol qiling.	Suv ☑ Salqin va toza suv bilan ta'minlang / Ish paytida suvni muntazam iste'mol qiling.
Soya ☑ Ish joyi yaqinida soya joy (dam olish maydoni) bilan ta'minlang. ☑ Soyabonni salqin havo o'tadigan joyga o'rnatning. ☑ Zarur bo'lsa, portativ konditsioner kabilarni qo'shimcha o'rnatning.	Shabada ☑ Ish joyiga termogigrometr(harorat va namlik o'lchagich) o'rnatib tekshirib turing. ☑ Ventilator, portativ konditsioner kabilarni o'rnatning va vaqti-vaqti bilan shamollating. ☑ Tungi ish paytida ham ichkaridagi haroratni nazorat qiling.
Hordiq ☑ Issiq havo oqimi haqida maxsus xabar (e'lon, trevoga) berilganda, muntazam ravishda 10-15 minutdan ortiq dam olishga vaqt bering. ☑ Eng issiq payt(soat 14-17)da ochiq havoda ishlashni qisqartiring.	Hordiq ☑ Issiq havo oqimi haqida maxsus xabar (e'lon, trevoga) berilganda, muntazam ravishda 10-15 minutdan ortiq dam olishga vaqt bering. ☑ Eng issiq payt(soat 14-17)da ochiq havoda ishlashni qisqartiring.

2. Issiq havo oqimining har bir darajasiga qarshi choralar

☑ Issiqlik bilan bog'liq kasallik haffi bo'lsa, ish beruvchi yoki ishchi ishni to'xtatib turishi kerak.

Trevoga yoki issiq havo oqimi haqida ogohlantirish ☑ Seziladigan harorat 35°C dan yuqori ☑ Har soatda 15 daqiqa dam olishga ruxsat bering. ☑ Eng issiq paytda, ilojisiz holatlardan tashqari, ochiq havoda ishlashni to'xtating.	Xavf yoki issiq havo oqimi haqida ogohlantirish ☑ Seziladigan harorat 38°C dan yuqori ☑ Har soatda 15 daqiqa dam olishga ruxsat bering. ☑ Eng issiq paytda, tabiiy ofat va xavfsizlik nazorati choralardan tashqari, ochiq havoda ishlashni to'xtating.
Umumiy qoidalar ☑ Seziladigan harorat 31°C dan yuqori ☑ Ishchilarga issiq havo to'g'ri haqida ma'lumot bering. ☑ Salqin suv, soya joy (dam olish maydoni), shabada joy tayyorlang. ☑ Himoya yengilari (narukavnik) kabi sovutish moslamalarini taqdim eting. ☑ O'ta og'ir ish qiluvchilar va zaif guruhlar nazorat qiling.	Ogohlantirish yoki issiq havo oqimi haqida e'lon ☑ Seziladigan harorat 33°C dan yuqori ☑ Har soatda 10 daqiqa dam olishga ruxsat bering. ☑ Eng issiq paytda ochiq havoda ishlashni qisqartiring yoki ish vaqtini o'zgartiring.

3. Issiqlik bilan bog'liq kasallik yuz bergandagi choralar

☑ Issiqlik bilan bog'liq kasallik yuz bersa darhol ☑ 112 ga murojaat qiling ☑ Favqulodda vaziyatda aloqa uchun

Pedoman pencegahan penyakit terkait panas saat **gelombang panas** di musim panas



1. Ikuti tiga aturan dasar

Tempat kerja di luar ruangan	Tempat kerja di dalam ruangan
Air ☑ Sediakan air dingin dan bersih / Minum air secara rutin saat bekerja	Air ☑ Sediakan air dingin dan bersih / Minum air secara rutin saat bekerja
Tempat teduh ☑ Sediakan tempat teduh (tempat istirahat) di dekat tempat kerja ☑ Kanopi untuk teduh harus ditempatkan di area yang memungkinkan angin sejuk lewat ☑ Jika diperlukan, pasang pendingin udara tambahan	Angin ☑ Pasang pengukur suhu dan kelembaban di tempat kerja dan harus diperiksa secara rutin ☑ Pasang kipas angin dan pendingin udara portabel serta lakukan ventilasi secara teratur ☑ Kelola suhu dalam ruangan bahkan saat bekerja di malam hari
Istirahat ☑ Tetapkan waktu istirahat teratur setidaknya selama 10-15 menit saat peringatan gelombang panas (waspada, bahaya) dikeluarkan ☑ Kurangi pekerjaan di luar ruangan saat jam puncak panas (14:00-17:00)	Istirahat ☑ Tetapkan waktu istirahat teratur setidaknya selama 10-15 menit saat peringatan gelombang panas (waspada, bahaya) dikeluarkan ☑ Kurangi pekerjaan di luar ruangan saat jam puncak panas (14:00-17:00)

2. Menanggapi Gelombang Panas

☑ Pekerja harus berhenti bekerja jika terdapat bahaya yang diakibatkan oleh penyakit terkait panas

Waspada atau peringatan gelombang panas ☑ Suhu terasa 35°C atau lebih ☑ Tetapkan waktu istirahat selama 15 menit setiap jamnya ☑ Penghentian pekerjaan di luar ruangan kecuali jika tidak dapat dihindari selama jam-jam gelombang panas	Bahaya atau peringatan gelombang panas ☑ Suhu terasa 38°C atau lebih ☑ Tetapkan waktu istirahat selama 15 menit setiap jamnya ☑ Penghentian pekerjaan di luar ruangan kecuali untuk pekerjaan manajemen bencana dan keselamatan selama jam-jam gelombang panas
Kondisi umum ☑ Suhu terasa 31°C atau lebih ☑ Memberikan informasi gelombang panas kepada pekerja ☑ Sediakan air dingin dan tempat teduh (tempat istirahat), dan udara sejuk ☑ Sediakan peralatan pendingin seperti manset lengan pendingin, dll. ☑ Manajemen pekerja dengan intensitas kerja yang tinggi dan kelompok sensitif	Siap siaga atau pemberitahuan gelombang panas ☑ Suhu terasa 33°C atau lebih ☑ Tetapkan waktu istirahat selama 10 menit setiap jamnya ☑ Kurangi atau sesuaikan waktu kerja di luar ruangan selama jam-jam gelombang panas

3. Tindakan dalam kasus penyakit terkait panas

☑ Segera hubungi 112 ☑ dalam kasus penyakit terkait panas ☑ Informasi kontak jika terjadi keadaan darurat

夏季**热浪**引起的高温疾病预防指南



1. 执行三大基本原则

户外工作场所	室内工作场所
水 ☑ 提供凉爽且干净的水 / 工作期间定期喝水	水 ☑ 提供凉爽且干净的水 / 工作期间定期喝水
阴凉 ☑ 在工作场所附近设立阴凉处 (休息空间) ☑ 在可以透过凉爽的风的地方安装阴凉篷 ☑ 必要时可以另行安装移动空调等	风 ☑ 在工作场所放置温湿度计并查看 ☑ 安装风扇、移动式空调等并定期通风 ☑ 夜间工作时也需管理室内温度
休息 ☑ 发布热浪警报(预警、警报)时, 定时休息10~15分钟。 ☑ 尽量减少炎热时段(14点~17点)的户外工作	休息 ☑ 发布热浪警报(预警、警报)时, 定时休息10~15分钟。 ☑ 尽量减少炎热时段(14点~17点)的户外工作

2. 热浪阶段应对要领

☑ 如果存在发生高温疾病的紧急危险, 雇主或工人应停止工作

警告或热浪警报 ☑ 体感温度在 35°C以上 ☑ 每小时提供15分钟休息时间 ☑ 除非不可避免, 否则应停止炎热时段的户外工作	危险或热浪警报 ☑ 体感温度在 38°C以上 ☑ 每小时提供15分钟休息时间 ☑ 除非进行灾难及安全管理工作的, 否则应停止炎热时段的户外工作
共同事项 ☑ 体感温度在 31°C以上 ☑ 向工人提供热浪信息 ☑ 准备凉爽的水、阴凉处(休息空间)、风 ☑ 提供冰袖等冷却装备 ☑ 管理高强度作业人员 and 敏感群体	注意或热浪预警 ☑ 体感温度在 33°C以上 ☑ 每小时提供10分钟休息时间 ☑ 炎热时段减短或调整户外工作时间

3. 发生高温疾病时的措施

☑ 发生高温疾病时, 立即拨打 112 请求救援 ☑ 紧急情况联系人



남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주연)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캠프 ‘해피 패밀리(HAPPY FAMILY)’를 운영했다.

남양주시의 지원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교감하며 정서적 유대를 다지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12가족(41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레크레이션 ‘마음열기’ △가족교육 ‘소통훈련’ △가족별 미션수

행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통훈련인 ‘의사소통의 건강성과 소통 전달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연 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가족이 서로의 존재를 되돌아보며 진심을 나눌 수 있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 어울누리근린공원 놀이시설 새단장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어울누리근린공원의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공사를 7월에 시작해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어울누리근린공원은 다산동 소재의 별빛초등학교와 멀티스포츠센터 앞에 위치해 있어, 평일과 주말 모두 많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찾는 주요 근린공원이다.

특히 초등학교생과 영유아 등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와 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기구에 대해 연령별 안전성을 갖춘 시

설물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정비사업에 총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용 가능한 복합 놀이기구로 교체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어울누리근린공원이 초등학교 앞에 위치함에도 ‘근린공원’으로 분류되는 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선별했다”며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남양주시, 2028년까지 공영주차장 6곳 추가 조성...주차난 해소 박차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밀집지역과 역세권, 전통시장 등 상습 불법주차 문제 해소 및 도심 주차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의와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80면 규모의 진접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진접역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환승 편의성을 향상시킨 바 있다.

올해는 47면 규모의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2028년까지 5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다산진건지구(주9) 공영주차장 94면(2026년 준공 예정)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174면(2026년) △다산역 환승주차장 308면(2027년) △평내동 물놀이장 공영주차장 68면(2027년)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317면(2028년) 등이다.

남양주시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실질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진접 장현전통시장, 와부읍 팔당2리, 호평교(국도 46호선) 하부 등 교통 혼잡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우리동네 주차장’ 사업도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주차 공간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골목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25개소를 조성해 운영 중이며, 8월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연내 총 26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GLOBAL CARE DREAM

간호학과 진로·진학체험

2025. 7. 23(수), 24(목) / 2일간

대상 다문화 청소년(중, 고등학생)
장소 경북대학교 남양주캠퍼스, SERIN 센터(신설동)
신청 QR코드 스캔 후 신청
문의 031.556.8211(가족생활팀)

프로그램
특강 간호사의 일상을 들여다보자(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체험 예비간호사 체험, VR체험 등
라운딩 SERIN(시뮬레이션연구실습센터) 라운딩 투어
멘토-멘티 활동

가족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지원

코딩 진로체험 '코딩놀이'

2025. 7. 29(화) ~ 31(목) 10:00 ~ 12:00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1~3학년
 *다문화·외국인·난민가족 자녀 참여가능

내용 엔트리 코딩 배우기, 코딩 동화·게임 만들기

장소 남양주2청사 B1(한국폴리텍대학 컴퓨터실)

문의 031.556.8211 (가족생활팀)

신청 QR코드 스캔 후 신청

가족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교육 참여자 모집

한국어교육 과정을 통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모집안내

- 대상: 중도입국 청소년(9세~24세)
- 모집인원: 20명(초급, 중급 2개반)
- 모집기간: 2025. 2. 12.(수)부터 수시모집
- 신청방법: QR코드 신청
(m.site.naver.com/1BpUh)

*모집정원 초과시 신규자, 최근 입국자 우선 선발

교육안내

- 일정: 2025. 3. 16.(일) ~ 11. 30.(일), 매주 일요일 10시~14시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남양주 제2청사 별관 2층 한국어교실
- 교육비: 무료(단, 교재 및 재료비 개인부담)

문의 031-553-8211 (가족생활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남양주

가족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 지원해요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9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간담회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정착한 결혼이민자인 서포터즈가 광주시 관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센터 프로그램 이용 연계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광주시 관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1:1 밀착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서포터즈가 함께 병원, 행정복지센터 등에 동행해 진료 및 서류 발급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활동이 7월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5년 광주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중국 1명, 베

트남 2명, 볼리비아 1명, 투르크메니스탄 1명, 필리핀 1명으로 총 6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간담회에는 활동 중인 서포터즈 6명이 한자리에 모여 상반기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상반기 활동 보고, 하반기 활동 및 교육 계획,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있었던 어려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들이 센터의 서비스에 대해서 바라는 점, 활동에 대한 보람 등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됐다.

이수희 센터장은 "2025년 하반기에도 광주시에 거주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서포터즈들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70-4706-3733

김영의 기자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열정으로 무더위를 날리다"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7월 10일 2학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학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기초반, 국적취득 준비반, 발음교정반 등 총 9개 과정이 수강생들의 수준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1학기 한국어교육은 2월에서 6월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7월 8일에는 감사 간담회를 개최해 상반기 교육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하반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학기 한국어교육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의 원활한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국내적응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9월에는 '양금 꽃 컵 설기 만들기' 등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이수희 센터장은 "결혼이민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교육 수요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실용적이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

부모자녀 독서코칭

참여자모집

책과 함께 생각이 자라고, 생각과 함께 미래가 자랍니다.
우리 아이 글쓰기 고민되시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내사항

대 상

다문화가족 초등 3, 4, 5, 6학년 자녀와 그 부모 회기당 15명
(외국인가정 및 중도입국 자녀 신청 가능)

신청기간

7월 21일(월) ~ 8월 17일(일)

장 소

센터 2층 교육장(대면)
주소: 광주시 통일로 52번길 19(구, 송정동 115-4)

내 용

8월 23일(토) 10:00~12:00 자녀대상 / 13:00~15:00 부모대상
 8월 30일(토) 10:00~12:00 자녀대상
 9월 06일(토) 10:00~12:00 자녀대상
 ★한 가정에서 부모 1회기 + 자녀 3회기, 총 4회기 모두 참석 우선 선정!!
 ★최소 3회기 이상 참석(부모 1회기 필수 참여)

접수방법

[센터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프로그램홍보신청]
 [-부모독서코칭]/[자녀독서코칭]
 ★중요 : 부모, 자녀 각각 신청해주세요!!
 부모는 부모 이름으로!! 자녀는 자녀이름으로!!

문의 : 070-4706-3618

기초학습지원 담당자

광주시가족센터

"말문이 트이면, 마음도 트여요"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6월 27일 다문화가정의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일환인 부모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말문이 트이면, 마음도 트인다'라는 주제로,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의 이해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중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비롯해 언어 차이와 언어장애의 구분, 동시적 이중언어와 순차적 이중언어의 차이, 그리고 다문화 아동의 언어 교육 방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래 언어발달 기준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저학년까지의 언어발달 특성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부모들이 자녀의 언어발달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언어 지연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 기질적 요인, 기타 요인 등으로 분류, 접근함으로써,

부모들이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석자들은 자녀의 언어발달 시작 시기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더 많은 자극과 관심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대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가정 내 언어 자극 방법은 언어발달지도사가 준비한 실제 시연 영상 등을 통해 소개되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의 언어발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가정 내에서 실질적인 언어 자극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취득하면 이주민의 삶이 달라져요

‘송실사이버대학교만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실력 UP! 송실력자의 더 행복한 한국생활 시작!’

한국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모든 이주민들의 꿈이에요. 체류 자격과 취업 등 2가지 문제는 모든 외국인주민이 경험하는 큰 과제이지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송실사이버대학교는 외국인주민에게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한 편리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볼까요?

송실사이버대학교는 어떤 학교야?

1997년 설립된 송실사이버대학교는 '진리'와 '봉사'라는 교육이념 아래, 7천여 명의 재학생과 각 분야별 2만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한민국 온라인교육을 선도하는 사이버대학교예요.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는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가 공인 및 학교 인증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특히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전공과목의 평생무료 수강이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어떤 점이 좋아?

송실사이버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요.

특히 100% 온라인 수업과 시험만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직장을 다니면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요.

한국에서 더 특별한 기회를 얻고 싶다면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대학 졸업장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직장과 한국어 공부 및 다양한 전문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어려

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송실사이버대학교가 제공하고 있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가점 20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의 노력에 따라 대학교 졸업 과정에서 토픽 4급은 무난하게 취득할 수 있어 비자 관련 점수 120점을 취득하는데도 유리해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외에도 F-2(거주) 비자를 비롯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도 훨씬 유리해요.

학비가 비싸지 않을까?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저렴한 학비로 졸업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학교의 1년 학비는 288만원으로 일반 대학 학비보다 저렴해요. 특히, 협약을 맺은 서울 및 경기도의 가족센터 및 외국인복지센터의 외국인 회원 학생에게는 50%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1년 학비가 144만원에 불과해요. 또한 다문화가족 학생에게도 30% 장학 혜택의 기회가 제공돼요.

한국어 못하는데 어떻게 해?

송실사이버대학교는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도 입학하고 수업 참여가 가능해요. 먼저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해 한국어 기초과정인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4학기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 수준의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이후 한국어교육학과와 본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어교원자격증 응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게 돼요.

또한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전공 4학기 과정을 이수 후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으면 한국

어교육학과 외에 26개 학과의 수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을까?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한 다와라모 씨의 교육경험을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사 학위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한국어 선생님이 이 온라인 수업을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송실사이버대학교의 수업이 일반 온라인 수업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큰 매력을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수업 내용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또한 교수님께서 기본 지식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거나 조교 선생님에게 즉시 전화해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대학교 학위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할 거예요. 그럼 저의 인생도 많이 달라지겠지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과 저의 삶이 무척 기대돼요.”

입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송실사이버대학교는 2025학년도 2학기 2차 모집은 7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예요. 원서접수는 송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kcu.ac)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한 후 입학원서 작성, 전형자료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면 돼요.

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kcu.ac) 또는 입학상담전화(02-828-550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러시아어 33면, 영어 25면>

송하성 기자



Post Office EMS discounts expanded to include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 residents!



Gyeonggi Province and Gyeongin Regional Post Office have decided to expand the discount on international express mail (EMS) rates, which was previously limi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to some foreign residents and implement the service. This is really good news. Gyeonggi Province and Gyeongin Regional Post Office have been providing discounts on international express mail (EMS) rates since 2011 to help multicultural families settle down in Korea early. However, starting this year, the support target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some foreigners.

Additional support targets include ▲foreign students (D-2, D-4) ▲foreign workers (E-8, E-9, H-2) ▲foreign nationals (F-1, F-2, F-3, F-4, F-5) ▲job seekers (D-10) residing in Gyeonggi-do, accounting for 85% of all foreigners residing in Gyeonggi-do.

These are also provided with a 10% discount on EMS shipping fees when visiting the post office, the same as the existing multicultural family discount, and up to a 13% discount when using the online simple application. It may be a bit disappointing for foreign residents who do not receive the discount benefits, such as E-7 workers.

To receive the discount, visit a post office in your province with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or, if

you are a foreign national,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card). If someone other than yourself, such as a friend, is sending the EMS, you must submit a copy of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and the agent's ID. If you are sending a large quantity of EMS for commercial purposes, you are not eligible for the discount.

Kim Won-gyu, the director of the Gyeonggi Province Immigration and Social Affairs Bureau, said, "We have promoted this agreement so that foreign residents can maintain connections with their families and find emotional stability," and "We will continue to discover highly tangible support policies so that foreign residents can live stably in Gyeonggi Province in the future."

Meanwhile, last year, we supported a discount of approximately 6,600 won per case, or a total of 27 million won, for approximately 4,000 international express shipments.

In fact, most countries will have a way to send parcels at a cheaper price than the post office EMS. However, the post office EMS is superior in that there is almost no risk of loss and it is delivered safely and accurately.

Please use the post office EMS a lot, as Gyeonggi Province is providing this discount benefit specifically for foreign residents.

〈한글 기사 1면〉

과파야스토리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광주시, 2025년 청년 자립 기반 강화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군 복무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특히, 생년월일이 2001년 1월 1일인 경우 1·2분기분, 2001년 1월 2일~4월 1일 출생자는 2분기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청년들은 신청 시 소급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마감 이후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오는 9월 10일부터 '광주사랑카드' 등 지역 화폐 형태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890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는 기자

광주사랑카드 할인율 상향해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광주사랑카드의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도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국비 28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43억 원

등 총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적용되며 이용자가 월 한도인 200만 원을 모두 충전해 사용할 경우 최대 1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는 기자

무더운 여름, 양평서 즐겨요~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여름 테마놀이공간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놀이체험실을 '여름 테마 체험 놀이터'로 새단장하고, 지역 영유아 가정을 위한 특별한 실내 놀이공간을 운영한다.

올해 여름 테마는 '폭염 또 왔수다!'로, 무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이 중심이다.

1층 아이사랑놀이터 양서점은 '퐁딩 바당' 콘셉트로 축축이 모래놀이, 상상 바닷가 공간, 소라게 관찰하기 등 영아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층 하늘놀이터는 '놀멍 캠프'를 주제로 별명터널, 캠핑 키친, 감정로봇 AI 리쿠, XR 체험 등 유

아의 흥미를 자극하는 활동이 마련됐다. 또한 각 공간에는 양평 인기 캐릭터 '양춘이' 포토존도 설치돼 가족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조연경 센터장은 "멀리 가지 않아도 양평에서 여름 바캉스를 즐기듯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이 신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테마 놀이공간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여 "폭염 또 왔수다!"라는 테마로 다양한 여름체험 놀이터를 리뉴얼했다. 센터 1층에는 아이사랑놀이터 퐁딩 바당, 2층에는 하늘놀이터 놀멍 캠프가 꾸며졌다. 특히 '제주도 바다 테마 놀이터'와 '캠핑장 키친존'에서는 해녀복 포토존, 상상 바닷가, 축축이 모래놀이터, 텐트 속 캠핑놀이, 캠핑요리사가 될 수 있는 키친 등등 놀이가 가득한 공간이 펼쳐진다.

이지은 기자

중학교 진학과정 설명회 열려

양평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 과정 설명회'를 오는 8월 3일(일) 오후 2시, 행복플러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업으로 기획됐으며, 중학교 진학을 앞두거나 현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유학기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방식, 고등학교 입학 절차 등 중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학부모들을 위해 동시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교육 안내 자료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설명회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중학교 교육과 진학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녀의 학업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전화 접수로만 가능하며, 양평군가족센터(031-775-59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2025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중학교

진학과정설명회

모집기간

2025. 7. 21.(월) ~ 7. 28.(월)

대 상

다문화·비다문화 예비 중학생 및 재학생 학부모

일 시

2025. 8. 3.(일) 14:00~16:00

강 사

한진영 장학사(양평교육지원청)

내 용

중학교 진학 교육 과정
1) 자유학기제와 활동 영역
2)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평가
3) 고등학교 입학 안내

장 소

양평행복플러스센터 4층 대회의실

신청문의

가족사업3팀 / 031-775-5951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양평교육지원청



용문공동육아나눔터

베이킹 클래스



대 상

초1 ~ 초 6 자녀를 둔 양평군민 8가정
(가정당 보호자 1명, 자녀 1명만 신청 가능)
경기육아나눔터 베이킹 프로그램 미참여가정 우선 모집

신청기간

7월 17일 목 오후 2시 ~ 7월 25일 금요일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일 정

8월 14일 ~ 9월 4일 매주 목 16시 ~ 17시
*총 4회기 모두 참여하셔야합니다.

내 용

8/14 캠핑은 맛있어! (캠핑 케이크 만들기)
8/21 탕글탕글젤리 (곤약젤리 만들기)
8/28 쫄면쫄면 우리 떡 (바람떡 만들기)
9/4 에너지 충전! (초코바 만들기)

신청방법

양평군가족센터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신청 -> 베이킹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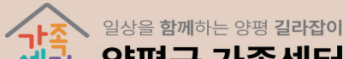
장 소

용문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실
(용문면 용문로 428 다목적청사 별관 1층)

문의 031-5176-9809



용문 공동 육아 나눔터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화만사성 가족합창교실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2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가족합창단이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년 초 신규 단원을 모집함에 따라 1기 가족합창단 멤버와 2기 신규 단원 간의 멤버십을 강화하고, 향후 안정적인 합창단 운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가족합창

단은 몽골,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 국적 부부와 자녀 등 다양한 가족들(12가족 총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합창단은 음악을 매개로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고, 단원 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특히 가족합창단에 대한 단원들의 남다른 애정과 단합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화만사성 가족합창단'은 하남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 단위 체험활동 등 다양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총 16회기 운영되며, 현재까지 9회기 진행됐다.

하남시가족센터는 향후 다문화가족들이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2회기의 가족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 물놀이장 1시간 연장 운영

하남시는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무더위를 해소하고자 물놀이장 운영시간을 오는 7월 26일부터 기존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호수공원·미사한강공원4호·풍산근린공원3호·신평어린이공원·위례순라공원·신우실근린공원(갑일)·유니온파크 7곳의 물놀이장은 26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운영하며, 8월 31일 종료된다.

물놀이장 이용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나머지 6개 물놀이장은 별도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반은 필수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단체의 예약은 불가하다. 이현재 시장은 "연장 기간에도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자신감 키우는 동화구연 진행

하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진행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7월 1일 센터 1층 가족꿈터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동화구연을 통한 자신감 UP' 3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자유인'은 2025년도 하남도시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에게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나아가 사회활동으로 연계하고자 기획된 지역사회 지원사업이다. 3월부터 시작돼 오는 11월까지 총 15회기 진행된다.

이번 활동은 일본 설날 문화를 알

릴 수 있는 <삿갓보살>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본 전통 놀이인 '후쿠와라이'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시작됐다.

'복(福)'과 '웃음(笑)'이라는 뜻을 가진 후쿠와라이는, 눈을 가린 사람이 얼굴 모양의 종이나 판 위에 눈, 코, 입 등의 얼굴 부위를 붙이는 놀이로, 부위를 정확한 위치에 붙이기 어려워 엉뚱하고 웃긴 얼굴이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웃음을 유도하고, 주로 설날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즐기며 행복을 나누는 전통 놀이다.

참가자들은 각자 만든 교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 뒤, 짝을 이루어 책을 읽으며 동화구연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9월~10월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 들려주는 이중언어 동화구연 봉사활동을 2회기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인형극으로 웃음과 행복 채워요

하남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화체험 실시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6월 25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일환으로 인형극과 매직벌룬쇼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취학 아동을 둔 24가정과 함께해 특별한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 관내 가족들을 초청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어울릴 기회를 마련하고, 가족 간 유대감 증진과 정서적 교감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생동감 있는 인형극과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매직벌룬쇼는 현장에 모인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아이들은 인형극의 이야기에 몰입해

집중하며 공연을 즐겼고, 풍선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매직 벌룬쇼에는 환호성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한 학부모는 "이들 눈높이에 맞는 공연기획으로 즐겁게 관람하였다"라고 하며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가족사랑의 날'은 하남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돌봄공동체 활성화와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병용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큰 행복과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Gyeonggi-do, ‘Chương trình tích điểm đọc sách với 1.000 cuốn’... Hỗ trợ tối đa 60.000 won mỗi năm 외국인주민도 경기도 독서포인트제 기억해요

Tỉnh Gyeonggi đã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Tích điểm đọc sách với 1.000 cuốn” – chính sách lần đầu tiên trên toàn quốc thường cho hoạt động đọc sách bằng tiền địa phương.

Trước đây cũng có các hình thức khuyến khích như tích lũy điểm thưởng hay tặng quà lưu niệm, nhưng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tại Hàn Quốc áp dụng hình thức thưởng bằng tiền địa phương. Đây thực sự là một chính sách hỗ trợ đọc sách ấn tượng của tỉnh Gyeonggi.

Chương trình “Điểm thưởng đọc sách với 1.000 cuốn” dành cho cư dân tỉnh Gyeonggi từ 14 tuổi trở lên, sẽ tặng điểm thưởng lên đến 60.000 won mỗi năm (tối đa 30.000 won trong nửa cuối năm). Điểm thưởng có thể được tích lũy thông qua nhiều hoạt động đọc sách như: mua sách, mượn sách tại thư viện, viết nhật ký đọc sách, đăng bài đánh giá sách, và tham gia “Câu lạc bộ 1.000 cuốn” (hoạt động câu lạc bộ đọc sách).

Sau khi xác nhận từng hoạt động (hóa đơn, ảnh, ghi chép nhật ký, v.v.), điểm sẽ được tích lũy tự động. Số điểm tích lũy sẽ được chuyển đổi thành tiền địa phương vào ngày 25 hàng tháng. Số tiền địa phương này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để mua sách

tại các hiệu sách địa phương trong tỉnh.

Thời gian tích lũy điểm là từ ngày 1 tháng 7 đến ngày 24 tháng 11.

Số tiền địa phương được cấp phải sử dụng trước ngày 7 tháng 12. Điểm không sử dụng trong thời gian quy định sẽ tự động bị hủy.

Ngoài điểm tích lũy cơ bản, còn có nhiều phần thưởng bổ sung khác như ‘Điểm chào mừng khi đăng ký’, ‘Điểm thưởng giới thiệu bạn bè’ và “Điểm thưởng thử thách điểm danh 21 ngày”.

Chương trình điểm thưởng đọc sách được vận hành trên nền tảng riêng (library.kr/bookpoint). Bạn có thể kiểm tra lịch sử tích lũy điểm và chuyển đổi sang tiền địa phương trong mục ‘Trang của tôi (My Page)’.

Tỉnh Gyeonggi có kế hoạch xây dựng một hệ sinh thái văn hóa đọc lành mạnh bằng cách kết nối hoạt động đọc sách với kinh tế địa phương, tạo nên một chu trình tuần hoàn tích cực: “Người dân đọc sách → Tích lũy điểm thưởng → Sử dụng tại hiệu sách địa phương”.

Qua đó, tỉnh nhằm đạt được hai mục tiêu cùng lúc là hình thành thói quen đọc sách cho người dân và thúc đẩy sự phát triển chung của các hiệu sách

địa phương.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cũng có thể tham gia không?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sẽ có thể tham gia chương trình “Tích điểm đọc sách với 1.000 cuốn” của tỉnh Gyeonggi bắt đầu từ năm sau. Hiện tại, do hệ thống máy tính chưa thể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là cư dân tỉnh Gyeonggi, nên sau khi hoàn tất việc sửa đổi hệ thống, từ năm 2026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sẽ được phép tham gia chương trình này.

Một đại diện của Văn phòng tỉnh Gyeonggi cho biết: “Chúng tôi kỳ vọng người dân sẽ tiếp cận việc đọc sách suốt đời với chương trình Tích điểm Đọc sách Ngàn Cuốn, bắt đầu từ việc đọc 10 phút mỗi ngày, mỗi tháng một cuốn sách, để đạt đến tổng cộng 1.000 cuốn trong đời.”

Đồng thời, “sau khi chỉnh sửa hệ thống điện tử, chúng tôi sẽ hỗ trợ người dân cư trú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tham gia chương trình đọc sách của tỉnh Gyeonggi.” Chương trình hỗ trợ đọc sách tuyệt vời của tỉnh Gyeonggi, giờ đây người dân cư trú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tham gia một cách tích cực!

〈한글 기사 6면〉

경기와국인SNS기자단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เปิดตัว “ระบบคะแนนจาก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ผ่านเล่ม”... มอบเงินสูงสุดปีละ 60,000 วอ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เริ่มใช้ “ระบบคะแนนจาก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ผ่านเล่ม” ซึ่งเป็นแห่งแรกในประเทศที่ให้อำนาจกิจกรรมการอ่านด้วย 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 ก่อนหน้านี้แม้จะมีของรางวัลหรือไมสเลจเป็นของที่ระลึก แต่การให้อำนาจเป็นเงินท้องถิ่นนั้นถือ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เกาหลี ซึ่งเป็นนโยบาย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านที่น่าทึ่ง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เลยทีเดียว

ระบบคะแนนจาก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ผ่านเล่มมอบคะแนนสูงสุดปีละ 60,000 วอน (สูงสุด 30,000 วอนในช่วงครึ่งปีหลัง) ให้กับประชาชน 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ที่มีอายุ 14 ปีขึ้นไป คะแนนสามารถสะสมได้จากกิจกรรมการอ่านหลากหลายรูปแบบ เช่น การซื้อหนังสือ, การยืมหนังสือจากห้องสมุด, การเขียนบันทึกการอ่าน, การเขียนรีวิว, และการเข้าร่วม “คลับผ่านเล่ม” (กิจกรรมชมรมการอ่าน) เป็นต้น

หลังจากมีการยืนยันกิจกรรมแต่ละประเภท (เช่น ใบเสร็จ, รูปถ่าย, บันทึกประจำวัน ฯลฯ) คะแนนจะถูกสะสมโดยอัตโนมัติ คะแนนที่สะสมไว้ จะถูกแปลงเป็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ทุกวันวันที่ 25 ของทุกเดือน และสามารถใช้จ่าย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นี้ซื้อหนังสือได้ที่ร้านหนังสือภายในจังหวัดได้

ช่วงเวลาในการสะสมคะแนนคือตั้งแต่วันที่ 1 กรกฎาคม ถึง 24 พฤศจิกายน 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ที่ได้รับจะต้องใช้ภายในวันที่ 7 ธันวาคม หากไม่ใช้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 คะแนนจะหมดอายุโดยอัตโนมัติ

นอกจากการสะสมคะแนนพื้นฐานแล้ว ยังมีรางวัลเพิ่มเติมมากมาย เช่น “คะแนนต้อนรับเมื่อสมัครสมาชิก”, “โบนัสสำหรับการแนะนำเพื่อน”, และ “คะแนนจากขालเล่นจิ๊กซอว์ครบ 21 วัน” อีกด้วย

ระบบคะแนนจาก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ผ่านแพลตฟอร์มเฉพาะ (library.kr/bookpoint) โดย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ประวัติการสะสม คะแนนและการแปลงเป็น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ได้ที่หน้า My Page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มีแผนที่จะเชื่อมกิจกรรม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กับเศรษฐกิจในท้องถิ่น โดยสร้างระบบนิเวศ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อ่านที่เป็นวงจรเชิงบวก ในรูปแบบ “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 → สะสมคะแนน → ใช้งานที่ร้านหนังสือท้องถิ่น” เพื่อส่งเสริมให้นิสัยการอ่า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กลายเป็นกิจวัตร และสนับสนุนการเติบโตของร้านหนังสือในพื้นที่ไปพร้อมกัน ถือเป็นภารกิจปีนัดเดียวได้กสองตัว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ได้ไหม?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 “ระบบคะแนนจาก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ผ่านเล่ม” 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ตั้งแต่ปีหน้า เป็นต้นไป

เนื่องจากในระบบคอมพิวเตอร์ปัจจุบันยังไม่สามารถลงทะเบีย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ป็นประชาชน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 จึงต้องมีการปรับปรุง ระบบก่อน และหลังจากนั้นตั้งแต่ปี 2026 เป็นต้นไป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จะ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 “ระบบคะแนนจาก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ผ่านเล่ม” ได้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ล่าวว่า “เราคาดหวังว่าผ่านระบบคะแนนจาก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ผ่านเล่ม ประชาชนจะอ่านหนังสือวันละ 10 นาที เดือนละ 1 เล่ม จนครบผ่านเล่มในชีวิต” พร้อมทั้งเสริมว่า “หลังจาก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คอมพิวเตอร์แล้ว เราจะสนับสนุน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อ่าน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อีกด้วย”

โปรแกรมสนับสนุนการอ่านอันน่าทึ่ง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ตอนนี้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ได้อย่างเต็มที่แล้ว! 〈한글 기사 6면〉

경기와국인SNS기자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3일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 열매 1억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으로 이뤄졌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방문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 그동안 고향이 그리웠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W아너클럽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해군 제2함대
군인가족 “여름 농장 놀러와”

평택시가죽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28일 바람새마을에서 해군제2함대 군인 16가족을 대상으로 여름 계절체험 ‘여름농장으로 놀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여름계절체험은 해군제2함대 군인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인 16가족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로컬된장 만들기, 붉은참쌀부꾸미 만들기, 농장 탐방 등 도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체험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을 향상하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군인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가족이 힐링하고 소진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행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센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 군인가족지원사업은 3군이 모두 주도해 있는 평택의 군사 도시적 특성을 반영해 군인가족의 복지향상과 문화여가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3개 부대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오는 9월 해군 제2함대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낙농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김영의 기자

독서
융합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3호점

조물조물 즐거운 구연동화

키즈스쿨레와 함께 하는 독서융합 프로그램

프로그램 : 전문강사의 구연동화를 듣고 스토리텔링과 만들기 진행

모집대상 : 평택시가주 21년생~22년생 아동과 보호자 10가정

진행일시 : 2025.07.17.~08.14. 매주 목요일 각 반별 5회 진행
A반 16:00~16:40 22년생 아동과 보호자 5가정 10인
B반 16:50~17:30 21년생 아동과 보호자 5가정 10인

진행장소 :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3호점
경기행복주택 커뮤니티센터1 내 공동육아나눔터

신청일시 : 2025.07.03.(목) 10:00~마감시까지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ptfc.familynet.or.kr>)에서 보호자명/아동명으로 회원가입 후 보호자를 가족대표로 체크 후 아동 아이디 추가하여 등록 ➡ 해당 프로그램 신청하기 클릭 후 가족선택에서 **아동 아이디 확인** 후 신청

문 의 : 031)668-9445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3호점

✖ 5회 모두 참여 가능시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 프로그램 참여 신규 우선 선정-선착순 접수 예정입니다.

✖ 참여자 중 대표 1명만 신청 시 **대기순번**으로 변경됩니다.

✖ 보호자 1인과 아동 1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형제/자매 동시 **신청 및 동반참여 불가**

✖ 접수번호는 선정번호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A반 바로가기

B반 바로가기

☒ 가족센터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동사진 사용 동의 필수

『돌날 아이와 책 읽기』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TEL: 031-668-9445

성인기 자녀를
돈 부부 전 ♥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 행복한 텀플레이 ·

대상

 성인기 자녀를 돈 부부 10커플(20명)
*** 남편과 아내 모두 신청해주세요!**

일시

 2025.07.26.(토) 10:00~15:00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107호 강의실
 (경기 평택시 서정로295, 북부북지타운 1층)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연간운양계획



신청 바로가기

♥ 1회기 ♥



[부부 교육] 10:00~12:00

시도구를 활용한
성향 이해와 관계 재정립 & 자녀와의 긍정적인 소통법

With. 김수영21사(문익21문익43)

♥ 2회기 ♥



[부부 체험활동] 13:00~15:00

우리 집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민화클래스체험 : 민화 부재)

With. 문익연21교(비목동문익양문익43)

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06

★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 ♥ 여러 가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프로그램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
연간 운영 계획을 미리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녀동반이 어려우며**, 당일 자녀를 동반하실 경우 프로그램실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 ♥ 프로그램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지만, 자녀 연령이 대상과 맞지 않거나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경우 대기전환** 될 수 있습니다.
- ♥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 체험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2회기 모두 참석 가능한 분들만** 신청바랍니다.
- ♥ 확정 및 대기 안내는 웹발신 문자로 안내되며, **웹발신 메시지 차단 또는 본 센터 전화번호 스톱워킹** 시 안내 메시지가 수신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해당 설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Скидка на EMS от почты — теперь не только для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но 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우체국 EMS 할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чтовой службы Кёнги решила расширить действие скидк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экспресс-доставку (EMS), которая ранее была доступна только много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включив в неё часть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ятная новость.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и Регион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чтовой службы Кёнги с 2011 года предоставляли скидку на EMS, чтоб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более быстрой адаптации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Корею. Но с этого года круг получателей помощи расширился и теперь включает часть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о к списку поддержки теперь включены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а именно: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D-

2, D-4) ▲иностранцы-работники (E-8, E-9, H-2) ▲иностранцы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F-1, F-2, F-3, F-4, F-5) ▲искатели работы (D-10) и др.

Эти категории составляют около 85% всех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Для них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акая же скидка, как и для мног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и посещении почтового отделения — 10% скидка на EMS, при подаче онлайн — до 13%.

Некоторым иностранцам, например, обладателям визы E-7, может быть обидно, что они не попадают под действие этой скидки.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кидкой, нужно прийти в одно из почтовых отделени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 удостоверением иностранца (в случае иностранцев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карточкой проживания).

Если EMS отправляет не сам владелец удостоверения, а, например, друг, то ну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пию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ностранца и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отправителя. Массовая отправка EMS в коммерческих целях не попадает под действие скидки.

Ким Вонгю,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вопросам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казал:

«Мы продвигаем это соглашение, чтобы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могл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язь с семьёй и находить эмоциональную стабильность. В будущем мы и дальше будем разрабатывать ощутим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чтобы иностранцы могли комфортно жить в Кёнгидо».

Кста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коло 4 000 скидок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экспресс-доставку, и сумма скидки составила примерно 6 600 вон на одну отправку, чт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составило около 27 миллионов вон.

На самом деле,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посылку дешевле, чем через EMS от почты. Однако благодаря почти нулевому риску утери, а также безопасной и точной доставке, EMS от почты считается более надёжным.

Пожалуйста, активно пользуйтесь EMS с этой специальной скидкой от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SNS-журналистский корпус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Шуудангийн EMS хөнгөлөлт,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ээс гадаад иргэд хүртэл өргөжлөө! 외국인 근로자도 우체국EMS 할인 혜택 받아요

Кёнги аймаг нь Кёнги бүсийн шуудангийн газартай хамтран, өмнө нь зөвхөн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д хамаарч байсан олон улсын түргэн шуудан (EMS)-ийн тарифын хөнгөлөлтийг зарим гадаад иргэдэд хүртэл өргөтгөж, үйлчилгээг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болсон. Үнэхээр баяртай мэдэ э биш гэж үү?

Кёнги аймаг болон Кёнги бүсийн шуудангийн газар нь 2011 оноос эхлэн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н дотоодод хурдан нутагшихад нь туслах зорилгоор олон улсын түргэн шуудан (EMS)-ийн тарифын хөнгөлөлтийн хөтөлбөрийг хэрэгжүүлж ирсэн. Харин энэ жилээс эхлэн дэмжлэг авах хамрах хүрээг зарим гадаад иргэдэд хүртэл өргөжүүлсэн байна.

Нэмэлт дэмжлэг авах бүлэгт

Кёнги аймагт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даад оюутан (D-2, D-4), ▲гадаад ажилтан (E-8, E-9, H-2), ▲гадаад улсаас ирсэн солонгос гаралтай иргэн (F-1, F-2, F-3, F-4, F-5), ▲ажил хайгч (D-10) зэрэг хүмүүс багт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дгээр нь Кёнги аймагт оршин суудаг нийт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85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

Эдгээр хүмүүс ч мөн адил өмнөх олон соёлт гэр бүлийн тарифын хөнгөлөлттэй адил, шуудангийн салбарт биечлэн очиж EMS илгээмж илгээвэл 10%, онлайн хялбар бүртгэл ашиглавал хамгийн ихдээ 13% хүртэл хөнгөлөлт эдлэх боломжтой.

E-7 визтэй ажилчид зэрэг хөнгөлөлтөд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гүй гадаад иргэдийн хувьд энэ нь бага зэрэг харамсалтай юм.

Хөнгөлөлт авахын тулд өөр

өө ирэх ёстой (гадаадын иргэншилтэй Монголчууд бол дотоод оршин суух мэдүүлгийн үнэмлэхээ авч, аймгийн шуудангийн газрынхаа очиж болно). Хэрэв өөр хүн, жишээ нь найз нь EMS илгээх бол гадаад иргэний бүртгэлийн хуулбар болон төлөөлөгчийн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ийг хамт авч ирэх ёстой. Худалдааны зориулалтаар их хэмжээний EMS илгээх тохиолдолд хөнгөлөлтийн боломжгүй.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лал, Нийгмийн хэлтсийн дарга Ким Вонгю “Гадаад иргэн оршин суугчид гэр бүлтэйгээ холбогдож, сэтгэл санааны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г олж авах боломжийг хангахын тулд энэ гэрээг хэрэгжүүлээ” гэж хэлээд, “Цаашид ч гадаад иргэн оршин суугчид Гёнги аймагт тогтвортой амьдрах

ад илүү үр дүнтэй дэмжлэгийн бодлогыг тасралтгүй эрэлхийлэх болно” гэж яриу.

Нөгөө талаар, өнгөрсөн жил 4,000 орчим олон улсын түргэн шуудангийн илгээмжид нэг бүрийн үнэ 6,600 воны орчим, нийт 27 сая воны хөнгөлөлт үзүүлсэн байна.

Үнэндээ ихэнх орнуудад шуудангийн EMS-ээс илүү хямд үнээр ачаа илгээх арга байдаг байх. Гэхдээ алдагдаж магадгүй эрсдэл бараг байхгүй, аюулгүй бөгөөд үнэн зөв хүрэх талаасаа шуудангийн EMS илүү давуу юм.

Гёнги аймаг гадаад иргэн оршин суугчдынхаа төлөө тусгайлан энэ хөнгөлөлтийн үйлчилгээг үзүүлж байгаа тул шуудангийн EMS-ийг идэвхтэй ашиглаарай. 〈한글 기사 1면〉



평택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5일 온가족보듬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인 가족 35명과 함께 소노벨 천안 오션어드벤처에서 ‘여름아 기다려’ 워터파크 가족행복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가족행복나들이는 평택시가족센터와 평택고려인협회(회장 황갈리나)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한 첫 프로그램이다.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으로 가족이 함께 어울려 친밀감을 높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참여 가족들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워터파크 내 토네이도 풀, 슬라이드, 와일드 익스트

림 리버 등 다양한 놀이체험을 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다.

평택고려인협회 최유리 부회장은 “평택시가족센터에서 고려인 가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좋은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 가족센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고려인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할 수 있어 좋았으며, 앞으로도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2호점 즐거운 구연동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조물조물 즐거운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융합 프로그램 전문 키즈스콜레의 지원을 받아 평택시 관내 거주 21년생~22년생 아동과 보호자 10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물조물 즐거운 구연동화’는 독서융합 전문 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고 들려주며 아이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통해 동화 내용을 되짚어 본 후 이야기 주제와 연결된 다양한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됐다.

보호자는 아이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아이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창의력과 상상력 자극하는 방법, 그리고 긍정적인 양육 방향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아동에게는 언어, 정서, 사회성, 인지발달은 물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신청했는데 독후연계 활동도 있어서 좋았다.”, “책 읽고, 만들기, 실험이 있어 아이가 좋아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독서와 연계된 활동을 하니 많이 도움이 되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이용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4호점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세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기혼여성 가사스트레스는 여가문화프로그램으로 풀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16일과 23일 가사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기혼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4회기 푸드 여가문화프로그램인 ‘얼그레이 마들렌 만들기’와 5회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사진 매개체 활용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얼그레이 마들렌 만들기’는 지역 공방인 제일제과 제빵학원과 연계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반죽과 앙금을 활용해 마들렌을 만들며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환기와 스



트레스 해소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여자들은 처음 접하는 제과 활동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 매개체 활용 집단상담’은 사진첩 만들기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진을 선정하고 그 속에 담긴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진을 매개로 한 자기개방을 통해 더 자연스

럽고 편안하게 사례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제빵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았다.”라며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기억을 새삼 떠올리게 되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사와 양육으로 지친 기혼 여성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지역공방과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심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Earning a Bachelor's Degree from Soongsil Cyber University Changes Immigrants' Lives 송실사이버대학교에서 학위 취득하면 이주민의 삶이 달라져요~!



Finding a job that suits you and living with your family in Korea is the dream of all immigrants. The two issues of residence status and employment are major challenges that all foreign residents experience. So what efforts should foreign residents make to solve these problems?

Earning a bachelor's degree in Korea can certainly be the beginning of solving problems. In particular, Soongsil Cyber University provides notable benefits to foreign residents and supports them to obtain degrees as conveniently as possible. Let's take a look at how I can make a new leap forward in my life in Korea.

What kind of school is Soongsil Cyber University?

Soongsil Cyber University, founded in 1997, is a cyber university leading online education in Korea with over 7,000 students enrolled and over 20,000 graduates in various fields under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and 'Service.'

At Soongsil Cyber University, you can obtain a regular 4-year bachelor's degree and various national and school-accredited qualifications. In particular, we operate a specialized program that allows you to take major courses for free for life, both while you are enrolled and after graduation.

What's good points about this school?

Soongsil Cyber University basically provides high-quality education to foreigners who have difficulty with Korean.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obtain a regular 4-year bachelor's degree while working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rough 100% online classes and exams.

If you want to get more special opportunities

in Korea, it is important to improve your Korean language skills and get a college diploma. However, it takes a lot of money and time to work, study Korean, and get various professional training at the same time. Soongsil Cyber University offers a bachelor's degree program that can easily overcome these difficulties.

What are the benefits of graduating from this school?

If you receive a bachelor's degree from Soongsil Cyber University, you can earn 20 extra points needed to obtain a skilled worker (E-9) visa. In addition, if you work hard, you can easily obtain a TOPIK level 4 during your university graduation process, which is advantageous for obtaining 120 visa-related points. In addition to the skilled worker (E-7-4) visa, it is also much more advantageous for obtaining an F-2 (resident) visa and permanent residency.

Aren't the tuition fees expensive?

At Soongsil Cyber University, foreign residents can graduate with low tuition. The annual tuition for this school is 2.88 million won, which is cheaper than the tuition for general universities. In particular, a 50% scholarship is provided to foreign students who are members of the family centers and foreign welf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do that have signed an agreement, so the annual tuition is only 1.44 million won. In addition, a 30% scholarship opportunity is provided to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at should I do if I can't speak Korean?

Sungshin Cyber University allows foreigners who have difficulty with Korean to enroll and participate in classes.

First, if you enroll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omplete the 4-semester Business Korean for Foreigners course, which is a basic Korean course, you can develop the ability to use advanced Korean at a university level.

After that, if you complete the main course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you will be qualified to take the Korean Language Teacher Certification exam.

Additionally, after completing the 4-semester Business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course, if you wish to study other majors, you can also take classes in 26 departments other tha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on't it be difficult to follow the class?

Let's hear about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Mr. Tawaramo, who entered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I could obtain a bachelor's degree and a Korean language teacher's license through online classes in Korea. I happened to find out about this online class because my Korean teacher recommended it. At first, I thought that Soongsil Cyber University's classes were no different from regular online classes, but when I actually took the class, I was very attracted to it. Above all, the class content is very scientific and systematic.

Also, the professor passionately explains basic knowledge.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email the professor or call the teaching assistant right away to ask. I will get a university degree and a Korean language teacher's license to teach Korean to foreigners at Soongsil Cyber University. Then, my life will change a lot. I am very excited about my future school life and my life."

How do I get admitted?

Soongsil Cyber University will be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first round of new students for the second semester of the 2025 school year from June 1 to July 10.

The second round of applications will be from July 19 to August 14. To apply, access the Soongsil Cyber University Admissions Support Center website (go.kcu.ac) via PC or mobile,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fill out the selection materials, and go through other procedures.

For detailed information about admission, please visit the Admissions Support Center website (go.kcu.ac) or call the Admissions Counseling Hotline (02-828-5501). Now, receive special education at Soongsil Cyber University and upgrade your life! <한글 기사 17면>

Song Hasung Reporter



‘식물관리사’ 체험하며 진로 설계해요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두드림(Do Dream)’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5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식물관리사 직업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집단상담에서는 ‘직업 이해’를 주제로 직업 맞추기 퀴즈, 직업 분류하기, 직업과 가치관 연결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활동에서는 나만의 직업카드를 만들어 발표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인이 되어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는 역할극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식물관리사 직업체험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

는 실습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식물관리사가 하는 일과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분을 심기 전 돌을 깔고, 뿌리의 나무껍질을 제거하는 등 실제 식물을 관리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식물 관리법을 배웠다. 또한, 식물 잎을 닦아주고, 물주기 방법을 질문하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익히는 기회가 됐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직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는 평택시가족센터 가족교육팀(031-615-3901)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행복한 아빠가 건강한 가족 만들어요

평택시가족센터, 테니스 클래스 ‘아버지 자조모임’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7월 5일 영유아기 및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자조모임 ‘행복한 아빠의 실험실’을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테니스 원데이 클래스로 마련돼 아버지들이 함께 땀 흘리며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은 전문 테니스 코치의 지도로 1:3 소그룹으로 이뤄졌으며, 라켓을 처음 잡아보는 참가자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됐다. 라켓 잡

는 법, 자세 교정, 포핸드 스트로크 연습을 거쳐, 마지막에는 강사와의 랠리로 실전 감각도 익혔다.

처음엔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도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풀렸고, 아버지들 간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며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양한 연령대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서로 육아 고민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 갔다. 한 참여자는 “오랜만에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타격감 덕분에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운동을 통해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아버지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평택시가족센터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와 정서적 지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 7월 21일부터 출산 친화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 개시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21일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 택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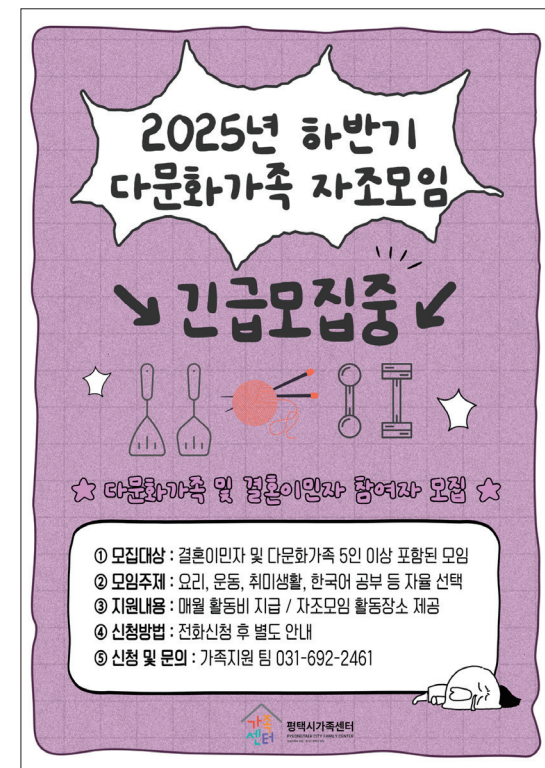
바우처 택시(택시 이용권)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보행상 중증장애인 및 임산부의 배차신청이 들어오면 운행 중인 일반택시가 대상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택시는 올해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증차한 데 이어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전화 또는 문자 신청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평택시 관내 전역을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10km 기본 1천500원, 5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나머지 택시 요금의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임산부는 월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횟수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031-651-47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미래 지원해요!

용인시가족센터, 진로 탐색 ‘진로소통콘서트’ 개최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가 용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지난 4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 콘서트는 둔전제일초, 백암중, 용전중, 용인바이오고등학교 등 용인시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 진행됐다. 센터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친밀하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했다.

‘진로 소통 콘서트’ 강사는 꿈을 잃고도 다시 시작한 자신의 인생 여정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와 비유로 풀어내며, 진로 선택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참여형 게임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강사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참여 학생들은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선생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

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미래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며 진로 콘서트를 통해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참여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됐으며, 향후 청소년 진로 탐색 및 기회 제공 등 사업 활동을 점차 확대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유지영 센터장은 “진로를 설계하는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용기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다양한 가능성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에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용인시가족센터 다가감봉사단
환경을 지키고 마음을 나눕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가 운영 중인 가족봉사단 ‘다가감 봉사단’이 다문화.비다문화 가족 간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가감 봉사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기로 운영되며, 현재 2회기를 마쳤다. 7월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정 내 친환경 실천 활동 ‘에코 박스’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현장 봉사활동은 오는 8월 2일 플로깅으로 시작되며, 11월에는 광고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에코 톡(양성 교육)’, ‘에코 박스(가정 활동)’, ‘에코 데이(캠페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을 주제로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협력하고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가족 간 역할을 나누고 함께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가족 내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참여자는 자원봉사 시간 인증(VMS)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환경을 주제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고,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용인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 참여형 봉사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 등
‘재능나눔미 수강생’ 모집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과 기흥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재능나눔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평생학습 재능나눔미’ 과정은 배움·나눔·성장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용인시 평생학습관의 특화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교육 종료 후 필수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 시간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용인시 평생학습관의 ‘웃음치료’ 강좌는 7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20주 과정이며, 수강료는 7만 5000원이다. 기흥평생학습관의 ‘재봉’ 강좌는 7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열리는 20주 과정으로, 수강료는 7만 5000원이다. 교육은 만 19세 이상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용인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과 주소지가 용인에 등록된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비다문화 통합 '다가감 봉사단'

SAVE THE EARTH

다문화가정 추가모집

지구를 지키는 우리 가족의 멋진 도전!

모집대상

다문화 4가정
(비다문화가정 모집 마감)

모집기간

인원 충원 시 종료 ※ 선착순 접수

모집방법

구글 폼(QR) 작성
※ 가정 대표 1인 작성

활동혜택

자원봉사(VMS) 시간 인정
※ 희망 자녀는 VMS 회원가입 필수

일정

★ 7/8월 에코 박스(가정 활동) 진행
가정에서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키트(8종) 제공

8. 2.(토) 10:30~12:30
에코 톡(3) '제로웨이스트, 밥상 위의 세계일주', 플로깅

9. 20.(토) 10:00~12:00
에코 데이(1) 플로깅, 씨앗 폭탄 던지기, 환경 약속 나무 제작 및 전시

10. 18.(토) *시간 추후 공지
에코 데이(2) 제작한 키트 전시 및 나눔

11. 8.(토) 10:00~12:00
에코 톡(4) 광고생태환경체험교육관 방문

11. 15.(토) 10:30~12:00
총평가회

문의: 사업2팀 신다영 070-7477-9200

용인시가족센터

수준별 한국어교육
추가 모집!

모집 대상

용인시 거주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각 반별 선착순 추가 모집!!

신청 방법

※ 아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QR코드 스캔)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한국어교육 신청 (결혼이민자 이름으로 신청!!)
2. 구글폼(온라인) 신청

교육 내용

반명	요일	운영 시간	학기 일정	진행 방법 및 장소
발음/말하기 (3단계/중급 이상)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월, 수	13:00~16:00	6/4(수)~ 8/27(수)	기흥구청 : 기흥구 관곡로 95 (구갈동)
토픽과정 (토픽 3~4급 대비)	화, 목	10:00~13:00	6/5(목)~ 8/28(목)	용인시가족센터 : 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문의: 사업 1팀 070-7477-8540

용인시가족센터

구인기업 모집

결혼이민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

결혼이민자 채용을 원하는
용인시 내 기업 및 사업체

기간

2025년 12월까지 구인기업 상시 모집

신청방법

전화 신청
사업1팀 070-7477-8540

구직자 자격

용인시 거주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채용절차

구인서식 제출 > 구인광고 게시 및 지원자 접수 > 지원자 명단 및 이력서 전달 (이력서 생략 가능) > 면접 > 합격자 발표 및 취업확인서 제출

제출서류

1. 구인서식
2. 채용 시 취업확인서

구인 게시처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2. 카카오톡채널
3.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 제출 방법: 이메일
(주소: yongincenter@daum.net)

용인시가족센터

이중언어강사
자격증 취득과정

이중언어강사란?
다문화자녀 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와 문화교육을 지도하는 강사

대상

용인시 거주 한국어능력 중급이상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20명
※ 31회기 100% 참여 가능자 우선 접수

일정

8.6(수)~11.26(수) 매주 월, 수 10시~13시 총 31회기

장소

용인시가족센터 (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내용

취업기초 소양교육 1회기, 이중언어강사 자격증 취득과정 30회기
① 출석률 100% 참여 시 수료 가능
② 실기시험 11.19(수)~11.26(수) 중 1회
③ 필기시험(온라인) 11.27(목)
※ 교재비 자부담(20,000원)
※ 자격시험(필기) 비용 자부담(99,000원)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QR코드 스캔)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결혼이민자 이름으로 신청!!)
2. 구글폼(온라인) 신청

문의

사업1팀 070-7477-8540

시민 권익보호 법률·세무 서비스

용인시, 법률 접근성 향상 무료법률상담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세무 관련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생활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3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용인시는 더 많은 시민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5회 운영했던 상담 횟수를 주8회로 확대하고, 상담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했다.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90% 이상의 시민이 무료법률상담실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지난 6월 기흥구 서천동에서 일어난 천공기 전도 사고에서 피해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용인시민과

지역내 기업체 종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이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나 시청 법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률과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京畿道推出“千本读书积分制”

每年最多支付6万韩元



京畿道在全国率先开始了用地区货币奖励读书活动的“千本读书积分制”，积分、纪念品等奖励以前也有过，但用地区货币进行奖励在国内尚属首次。这是京畿道令人惊艳的读书支援政策。〈照片=京畿道厅〉

千本读书积分制以14岁以上的道民为对象，每年最多支付6万韩元（下半年最多3万韩元）的积分。

积分可以通过购买图书、借阅图书馆、写读书日志、上传书评、千本俱乐部(读书社团活动)等多种读书活动积累。

通过各活动的认证（收据、照片、日志输入等）确认后，自动累积积分。累积的积分会在每月25日转换为地区货币。兑换后的地区货币可用于道内地区书店购书。

积分累积时间为7月1日~11月24日。支付的地区货币必须在12月7日之前使用。期间内未使用的积分会自动消失。

除了基本积分累计外，还有“加入祝贺积分”、“推荐人奖金”、“21日打卡挑战积分”等多种追加奖励。

读书积分制在专用平台(library.kr/bookpoint)上运营。积分累积和地区货币转换明细可以在我的主页上确认。

京畿道计划将读书活动与地区经济联系起来，形成“道民读书→积累积分→利用地区书店”的读书文化生态界良性循环结构，实现道民读书习惯化和地区书店相生双赢。

外国居民也可以参加吗？

外国居民从明年开始可以参加京畿道的“千本读书积分制”，现在很难在电算系统中将外国人作为京畿道居民输入系统，所以经过系统修改工作后，从2026年开始外国居民也可以参与“千本读书积分制”。

京畿道厅相关人士表示：“期待通过千本读书积分制，每天10分钟到每月1本，一生能接触到千本读书”，“经过电算系统的修改，将支援外国居民也能参与京畿道的读书项目”。

京畿道令人惊喜的读书支援项目，今后外国居民也可积极参与！

〈한글 기사 6면〉

용인시박물관, '민화 체험 교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박물관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전통 회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민화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소장품인 이희순 작가의 ‘호접도’를 주제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민화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직접 그림을 그려보며 우리 전통 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은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는 2주에 걸쳐 한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모집은 총 4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1회차 7.16~7.23 ▲2회차 7.30~8.6 ▲3회차 8.13~8.20 ▲4회

차 8.27~9.3 등으로 회차별 10명씩 모집한다. 교육은 민화의 역사와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이론 강의와 직접 민화를 그려보는 실습활동을 병행해 민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참여 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용인특례시 통합예약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resve/index.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민화 체험 교실은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모집!

용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PLUS UP

모집!

모집대상 및 기간

모집대상

용인시 거주 다문화가족 10가족

자녀연령: 초등5학년~중학생

** 4회기 모두 100% 참석 가능 우선 접수예정

** 형, 누나 따라 동생도 참여 가능!

지원방법 및 문의

지원방법

QR코드 or 홈페이지 or 유선 신청

** 참여자 모두 홈페이지 신청해야함.

문의처

070-7477-9201 사업1팀 임소연

프로그램 일정

일정

1회기 08월 23일 (토) 10:00~14:00 2회기 09월 20일 (토) 10:00~14:00

3회기 10월 25일 (토) 10:00~14:00 4회기 11월 22일 (토) 08:00~16:00 (나들이)

장소

용인시 가족센터 3층 다목적강의실 2 및 외부

소통 프로그램

사진활동(찰칵, 우리다움)

가족의 사진을 활용한

정서 탐색과 소통의 시간

협동 프로그램

푸드테라피

함께 요리하며 즐기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

친화 프로그램

나들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친밀감 상승

용인특례시

가족센터

자주온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몽골에서 아동권리 증진 활동

신계용 시장, 유니세프 등 다양한 활동



과천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도시들과 함께 몽골을 방문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첫 국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유니세프가 추진 중인 친환경 학습환경 구축사업인 ‘그린스쿨 프로그램’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자리였다. 이번 방문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과천시, 충남 홍성군, 예산군, 경기 시흥시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유니세프 몽골사무소를 찾아 간

담회에 참석하고,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울란바토르에 있는 ‘74번 학교’를 방문해 그린스쿨 프로그램이 적용된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교육환경 격차 해소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지 학생들과 함께 나무심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과천시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이번 국제 교류를 통해 아동친화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실천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몽골에 직접 방문해 아동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경험과 정책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다”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

공구 대여·자전거 보험 등 10개 정보 제공



과천시는 반복적인 생활 민원 응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시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생활안내 책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신규 전입자에게 종이 형태로 제공됐지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특히 시민 문의가 많은 항목을 선

별해 콘텐츠로 구성했다.

해당 채널은 카카오톡에서 ‘과천시 생활안내 책자’를 검색한 뒤 채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이사 전후 해야 할 일 △쓰레기 배출 요령 △폐가전 수거 △무료 공구 대여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10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담당 부서 연락처도 함께 안내돼 편리한 상담이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자주 묻는 생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문화체육 교류로 우정 이어가요

과천시, 자매도시 미국 벌링턴시 방문단 환영



과천시는 7월 10일, 국제교류도시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 방문단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과천시 청소년 16명이 벌링턴시를 찾아 여학연수를 진행한 데 이어, 양 도시 간 교류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과천시와 벌링턴시는 지난 2011년 친선결연을 맺은 이후, 청소년 여학연수,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벌링턴시 방문단은 자매결연 초기부터 교류를 위해 힘써온 이상호 해외협력관을 단장으로, 태권도에 관심 있는 벌링턴 시민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환영식에는 신계용 과천

시장, 정정균 과천시체육회장, 황인재 과천시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해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방문단은 이어 과천시 대표 문화시설인 추사박물관을 찾아 특별기획전 ‘추사를 품다’를 관람하고, 세한도 탁본 체험과 추사부채 만들기에 참여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벌링턴시는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5만 3천 명의 중소 도시로,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공원·호수 등 여가시설이 풍부한 지역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 친선도시인 미국 벌링턴시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이 양 도시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세계 여러나라와 국제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Family Center of Gwacheon City in 2025

Multicultural children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support project

Business introduction

Target	Multicultural children with a median income of not more than 100% who do not receive educational benefits aged 7 to 18
Cont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 (400,000 won), middle school students (400,000 won), and high school students (600,000 won) per child
Method	Points will be paid to the NH Nonghyup Card in the applicant's name
Where to use it	Use of textbooks, reading rooms, purchase of arts and sports and practical materials, etc
Expiration date	Until November 30, 2025

Recruitment

	Details
Application period	1st : Friday, May 2nd ~ Friday, May 30th 2nd : Tuesday, July 1st ~ Thursday, July 31st
Application documents	Application for support for educational activity expenses, a certified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a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certificate of payment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etc
Inquiry for application	Head of multicultural children's education activity expense project at Gwacheon Family Center (02-503-0070)

과천시 가족센터

Gwacheon Family Center

02-503-0070

Если получить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в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е, жизнь мигрантов изменится

송실사이버대학교만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실력 UP!



Найти подходящую работу и жить с семьей в Корее — мечта всех мигрантов. Однако вопросы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являются двумя основ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все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ак какие усилия должны прилаг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для решения этих проблем?

Получение степени бакалавра в Корее, без сомнения, может стать отправной точкой для решения этих задач. Особенно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 предлагает заме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иностранным жителям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доб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степени. Давайте узнаем, к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начать новую жизнь в Корее?

Что это за университет —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 основанный в 1997 году, является ведущ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онлайн-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рее, базирующимся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деологии «Истина» и «Служение», с более чем 7 000 студентами и свыше 20 000 выпускникам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официальную 4-летнюю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и различ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сертификаты. Особенно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действует уник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зволяющая бесплатно проходить курсы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ожизненно как во время обучения, так и после выпуска.

Что хорошего в эт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м трудно дае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собенно удобно то, что благодаря 100% онлайн-занятиям и экзаменам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не завися от времени и места, совмещая учебу с работой.

Если вы хотите получить более особ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Корее, важно развить знание кор

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о высшем образовании. Но совмещать работу,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требует немалых затрат времени и денег. Программу бакалавриата,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легко преодолеть эти трудности, предлагает именно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

Как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дает окончание эт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сли получить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в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20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балл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ы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го рабочего (E-7-4)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E-9).

Также, приложив усилия, можно без труда получить 4 уровень TOPIK в процесс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набору 120 балл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визы.

Кроме визы E-7-4, это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о помогает в получении визы F-2 (резидентской) и постоянного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А не слишком ли дорогая учеба?

В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могут окончить обучение с доступными расходами.

Годовая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составляет 2 880 000 вон, что дешевле, чем в обыч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Особенно, если вы член иностранного центра при семейных центрах Сеула или Кёнгида, с которыми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вы получаете 50% скидку, и тогда годовая плата составляет всего 1 440 000 вон.

Кроме того, студента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30% скидку на обучение.

А если я не знаю корейский?

Даже иностранцы, плохо владеющие корейским, могут поступить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занятиях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а.

Сначала поступив на кафедру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жно пройти 4 семестра базового курса дело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и развить навыки до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н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м уровне.

Затем, окончив основную программу кафедры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для сдачи экзамена на получение сертификата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ор

ейского языка. Также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4 семестров курса по делов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можно выбрать друг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и учиться на одном из 26 других факультетов.

А не будет ли трудно следовать за учебной программой?

Послушаем опыт обучения госпожи Даварамо, поступившей на кафедру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Я была удивлена, узнав, что в Коре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и сертификат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ерез онлайн-обучение. Узнала об этом случайно, когда мой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орекомендовал эту онлайн-программу.

Сначала я думала, что занятия в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е ничем не отличаются от обычных онлайн-курсов, но когда начала учиться, почувствовала большое очарование.

Прежде всего, содержание занятий очень научное 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 энтузиазмом объясняют базовые знания.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вопросы, можно отправить письмо преподавателю или сразу позвонить ассистенту.

Я собираюсь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и сертификат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е.

Разве моя жизнь не изменится? Я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 своей учебной жизни и будущей жизни!»

Как поступить?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 проводит первый набор новых студентов на 2-й семестр 2025 учебного года с 1 июня по 10 июля. Второй набор — с 19 июля по 14 августа.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через сайт центра поступления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а (go.kcu.ac) с ПК или мобиль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заполнив заявление и предоставив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оступлении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поступления (go.kcu.ac)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справочной службы поступления (02-828-5501).

Теперь получите особ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Сунсиль Кибер Университете и улучшите свою жизнь!

〈한글 기사 17면〉

이주민과 따뜻한 어울림의 시간

문화더함공간서로, 상반기 어울림마당 진행



문화더함공간 서로(서로장 김유리)는 지난 6월 29일 화성마을사랑방에서 외국인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어울림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팀별 레크리에이션과 공동체 게임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유리 서로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

도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어울림마당은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지역 내 상호 이해와 연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게임을 하면서 너무 많이 웃었고 즐거웠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체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존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온가족보듬사업 보듬매니저 교육

화성시가족센터, 정서적 피로감 등 해소 지원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7월 1일 온가족보듬사업 활동가인 보듬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업사이클링 공예 활동을 통한 힐링과 소속감 증진'을 주제로, 보듬매니저들이 가정방문 업무에서 겪는 정서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가족보듬사업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로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기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담사례팀에서는 대

상 가정 상황에 맞추어 학습 정서, 생활 도움과 긴급위기 서비스 중 보듬매니저를 파견해 가정의 안정과 발전을 돕도록 힘쓰고 있다.

이날 보수교육은 이영희 강사의 진행으로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강의는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공유하고, 친환경적인 도어벨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천 조각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도어벨을 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실천 방안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보듬매니저들의 역량 강화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070-7774-7085

김영의 기자

학부모와 다문화 교육 해법 모색

신미숙 도의원, 국제교육모델 확대 강조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7월 3일 남양초.중학교 학부모와 관계자를 만나 다문화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비단 화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은 지역의 전반적인 다문화 교육 현안을 살펴보는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언어 다양성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방안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제교육 특화모델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남양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내 다문화 학생의 재학 비율이 30% 이상으로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학생들 간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이중언어, 영어 활용의 생활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중학교 학부모는 "지역 내 학교가

특정 이미지로 고착되지 않고 기피가 아닌 모두가 선호하는 학교가 되려면 언어,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국제교육특구 등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를 포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탈되지 않게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남양초등학교 교장은 "127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는 상징적인 학교임에도 시설이 낙후되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학습 환경 증진을 위한 소규모환경개선, 기초지자체 협력지원사업 등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남양초.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 내 여러 학교로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라며 "학생 간 언어 소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동시통역 지원시스템 도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화성 동탄 패밀리폴 7월 19일 개장

화성시가 가족형 물놀이시설 '동탄 패밀리폴'을 오는 19일부터 시범운영 방식으로 개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동탄1신도시 2단계 문화공원 1호 부지(석우동 654번지 일원)에 있으며, 총면적 7만 4232㎡ 중 물놀이 공간은 약 1만 9000㎡ 규모다.

패밀리폴은 8월 31일까지 6주간 무료 개방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정시 50분 운영 후 10분간 휴식)며, 낮 12시~오후 1시는 시설 정비시간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일이다.

이곳 이용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시범운영 기간 중 일일 500명 제한으로 운영된다. 예약은 이용일 기

준 사흘 전 오전 0시부터 가능하며, 예약 후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예약이 제한된다.

물놀이 시설은 수심 0.87m의 아쿠아폴(2990㎡), 유아폴(254㎡), 플로팅리버폴(765㎡), 힐링온수폴(116㎡), 음악분수 포레스트블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대 시설로는 외부 화장실 1동, 탈의실 2동, 야외 샤워장 1동, 파라솔 52개, 파고라 17개, 그늘막 31개, 평상 19개소 등이 마련돼 있다. 쿨링포그, LED 벵조명 등 특화 시설도 갖췄다.

화성시 관계자는 "가족 단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1학기 한국어 수업 종강식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7월 6일 센터 3층 강당에서 ‘2025년 1학기 한국어 수업 종강식’을 열고 3개월간 이어진 배움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수업은 외국인 주민의 언어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급부터 고급, 온라인, 토익까지 수준별로 구성된 커리큘럼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는 물론, 생활 속 표현과 문화 이해 등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종강식에서는 반별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수강생들의 진심 어린 소감이 이어졌고, 그간의 노력과 성장을 함께 축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과 웃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센터에서는 1학기 동안 성실히 참여한 수강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떡을 나누는 ‘책거리’ 행사도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학습의 의미를 되새겼고, 서로에게 응원의 덕담을 건네며 지난 시간을 함께 축하했다.

손병희 센터장은 “한국어수업은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따뜻한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등 지원해요!

화성글청, 화성시와 유니세프·JB캐피탈과 협약 통해 운영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화성시 프로젝트 169’를 본격 추진한다.

‘화성시 프로젝트 169’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를 과제로, 지난달 JB우리캐피탈(대표이사 박춘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화성시 관내 0~36개월 출생 미등록 이주 영유아 35명, 만 13세까지의 아동 15명을 대상으

로 기초 건강검진 비용과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JB우리캐피탈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프로젝트 기획과 관리 및 보조금을 지원하며, 화성시는 미등록 영유아의 출생 등록 및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사업 수행 주체로서 사업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한편,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검진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들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은이 센터장은 “본 사업을 통해 화성특례시가 더 안전한 도시, 아동친화적인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자녀를 둔 미등록 이주민 부모는 센터 담당자(070-4115-0161)에게 면담 신청 후 아이의 건강검진과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면담 후 사례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화성시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정의 미등록 이주민 부모가 내원할 경우 센터로 연계하면 업무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상반기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화성시가족센터, 간담회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7월 3일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성장관리사 7명과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돌봄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활동가들은 다문화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미경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내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활동가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부모들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다문화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자녀들에게 안전한 양육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070-7774-7081)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마두금과 호쇼르로 만나는 몽골” 화성외복, 선주민 이주민 문화교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병희)는 지난 7월 6일 센터 3층 강당에서 ‘몽골에 대하여-전통문화와 음식 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공동체 리더들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호쇼르를 먹으며 몽골의 전통악기인 마두금 연주를 시작으로 몽골전통춤까지 이어진 짝 찬 문화나눔이었다. 특히 마두금 연주는 귀한 손님이 오거나 행사가 시작될 때 연주한다고 한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손님들과 나누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더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됐다. 참여자들은 “몽골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음식까지 맛볼 수 있어 훨씬 친밀감을 느껴졌다”고 말했다. 손병희 센터장은 “이번 문화체험은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행복 플러스 든든 라이프'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6월 4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총 8회에 걸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행복 플러스(Plus) 든든 라이프(Life)'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생활 초기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친 결혼이민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며 한국에 최초 입국한 지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미래설계 ▲당당한 학부모 되기 위한 부모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사회활동 확대) ▲홈 스킨케어 제품 만들기(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체계적인 정착 준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봉담에 위치한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며 관심 있는 직업훈련 과정

과 자격증 취득을 탐색해보는 등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그동안 성실히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홈 스킨케어 제품을 함께 만들며 참여자 간 유대감을 다졌다.

참여자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다”, “쌍둥이 자녀를 양육 중인데 이번 부모교육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오는 9월에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화성 동부권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중장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고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86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부부관계 의사소통 등 향상프로그램 운영해요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 2차에 걸쳐 의사소통 및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 6쌍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를 진행했다.

1차 프로그램에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마고(IMAGO) 관계치료 기법과 심리극 기법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해결된 욕구의 탐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차 프로그램에서는 이마고부부대화법을 통해 일상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인정하며 공감하는 실습 및 부부의 행복비전 세우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부는 “오랜만에 결혼 전의 서로에 대한 좋았던 감정과 사랑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는 일상에서도 배운 치유의 대화법을 실천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익혀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1인가구지원

중장년 집단상담 '타로'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6월 21일과 28일 양일간 중장년 1인가구 대상으로 '나를 알아가는 타로 상담'을 진행했다.

집단상담에서는 타로카드 이해하기, 자신의 감정과 마음 나누기, 타로카드를 타인과 교감하기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6명의 참여자는 타로를 통해 자신의 기질 및 심리를 이해하고 평소 생각과 고민을 자연스럽고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평소에 관심이 많던 타로를 통해 나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다. 시간이 짧아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 타로 상담에 깊게 몰입할 수 있었고,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며 최근 고민을 정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타로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기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니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집단상담으로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 정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집단상담 '나를 알아가는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70-8831-8624

김영의 기자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

화성시가족센터, 노년 1인가구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노년 1인가구 24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를 진행했다. 집단상담에서는 ▲일상 공유를 통한 마음 나누기 ▲신체활동을 통한 마음 환기(뇌 활성화 운동, 플로어컬링 등) 등이 이뤄졌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감사와 참여자 간 라포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높은 참여도

와 결속력이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릴 만큼 집단상담이 삶에 큰 활력이 되었다. 서로 위하며 일상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니 너무 행복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미경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하며 더 젊고 건강해지신 것 같고, 프로그램 내내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온다. 노년 1인가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센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집단상담 '나를 알아가는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시가족센터 1인가구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8831-8624, 031-352-1214/2번)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